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끊임없는 혁신의 시대에서 성공하기

Thriving in an age of continuous reinvention



삼일회계법인



윤 훈 수
삼일PwC 대표이사 CEO

지난 4년간 팬데믹과 전쟁으로 요동쳤던 세계경제는 올 한 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금리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세계경제는 공급망과 기술 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가 늘며 지표 경기는 개선되겠지만, 소비와 건설 경기 부진으로 체감 경기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PwC의 '제27차 연례 글로벌 CEO 설문조사(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이하 글로벌 CEO 서베이)'에 참여한 전 세계 105개국 최고경영자(CEO) 4,702명의 답변에도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한국 CEO의 국내외 경제 전망은 다른 나라 CEO보다 더 어두운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 CEO의 64%가 세계경제 둔화를 전망했는데, 이는 글로벌 평균인 45%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 CEO의 66%는 국내 경제가 둔화될 거라 답한 반면, 중국(19%) 인도(3%) CEO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CEO는 다른 나라보다 기업 생존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현재 추세로 계속 운영된다면 수익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10년 미만’이라 답한 한국의 CEO가 무려 75%에 이르렀으며, 글로벌 CEO 평균(45%)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존에 민감한 한국 CEO는 향후 3년간 매출에 대한 자신감(34%) 또한 지난해(53%)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CEO가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제 환경(74%)을 꼽은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혁신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각종 규제 개선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CEO는 사내 인력의 기술 부족(70%), 공급망 불안정(66%)을 혁신의 방해 요소로 꼽았습니다.

향후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기후변화와 기술 혁신에 대한 한국 CEO의 생각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CEO의 43%(글로벌 평균 41%)는 기후 분야에 투자할 때 다른 투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용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기후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 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가(70%)를 가장 크게 기대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CEO 서베이’ 보고서의 주제는 ‘끊임없는 혁신의 시대에서 성공하기(Thriving in an age of continuous reinvention)’입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CEO는 기술 변화, 고객 선호도 변화, 정부 규제 등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절박함으로 대다수 기업은 이미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전략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 자원의 재분배가 활발할수록 혁신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리더는 어떤 혁신을 해야 할까요. 이번 서베이를 통해 글로벌 CEO들은 혁신을 거창하고 추상적인 변화가 아닌, 일상의 작은 업무 비효율을 바꿔나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CEO들은 규제, 공급망 등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대부분이 회사 내부에서 CEO의 경영방침에 따라 개선 가능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CEO들은 업계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합작 투자 및 제휴 등을 통해 경쟁사 대비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더 높은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을 10년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 세계 CEO의 생각을 담은 이 보고서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의 토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끊임없는 혁신의 시대에서 성공하기

PwC의 '제27차 연례 글로벌 CEO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105개국 4,702명의 최고경영자(이하 CEO)는 이미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전략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CEO는 지난해보다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했지만, 45%(한국 75%)는 자신의 기업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운영됐을 때,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술 변화, 고객 선호도 변화, 정부 규제 등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CEO들은 어느 때보다 혁신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PwC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CEO의 의견을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CEO가 직면한 도전의 본질을 들여다 보고, 비즈니스 기회를 명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혁신의 필요성 3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 1. 기업 생존에 대한 우려 4
- 2. 부담과 위협 요인 9

다가오는 실존적 변화 11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메가트렌드인 기후변화, 기술 혁신(생성형 AI)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회와 위협 요소를 짚어봤습니다.

- 3. 기후변화 대응 12
- 4. AI가 가져올 기회 14
- 5. AI로 인한 위협 18

혁신을 위한 가이드 19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 6. 현재를 개선하는 혁신 20
- 7.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22
- 8. 기후투자에 대한 목표 수익률 조정 26
- 9. 새로운 기회 포착 27

Appendix 30

주요 5개 지역과의 설문조사 결과 비교

피할 수 없는 혁신의 필요성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1. 기업 생존에 대한 우려

- 글로벌 CEO들은 1년 전보다 세계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38%)보다 악화(45%)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한국 CEO는 다른 나라보다 국내외 경제를 어둡게 전망하는 경향이 강해, 64%가 올해 세계경제 둔화를 전망했으며, 이는 글로벌 CEO 평균(45%)을 크게 상회한다.
- 한국 CEO의 75%는 자신의 기업이 그대로 운영된다면 10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글로벌 평균(45%)과 큰 격차를 보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만큼 혁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Our take: 기술 혁신, 기후변화 등 가속화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경영자는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압박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CEO들이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위한 지원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도적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 및 기술에도 주목합니다. 성공적 경영을 위해 리더는 더 넓은 범위에서 혁신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결합해 적용해야 합니다.

2. 부담과 위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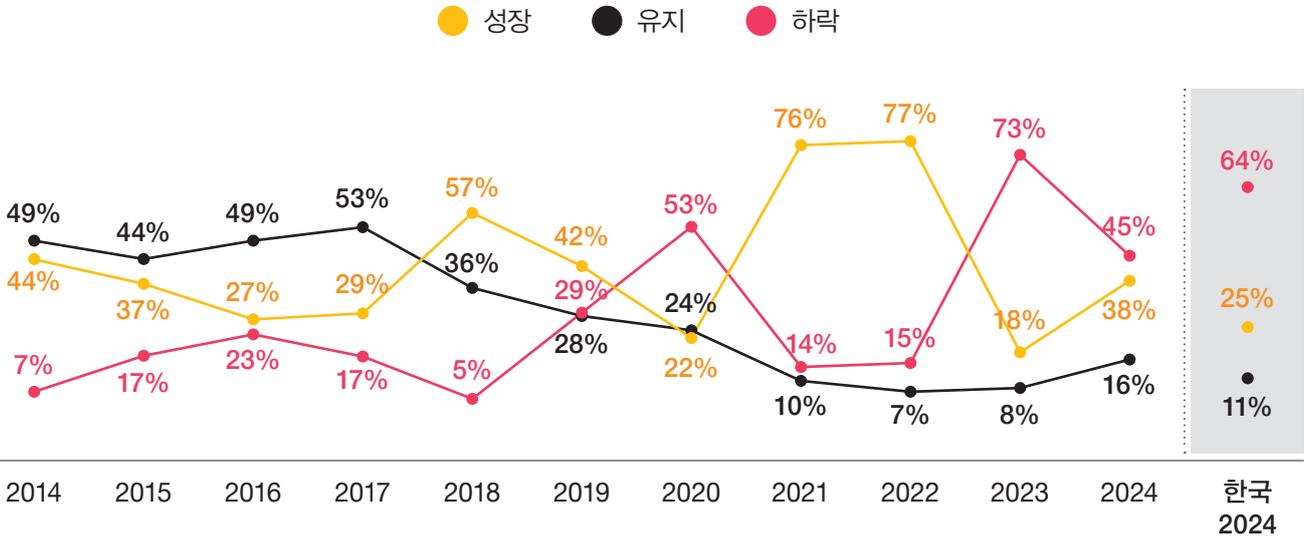
- 거시경제 변동성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우려 수준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한국(18%p)과 글로벌(16%p) 모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 글로벌 CEO들은 혁신의 주요 동인(기술·고객 선호도 변화·정부 규제·기후대응 등)이 앞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향후 3년간 기업 경영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올 요인으로 정부 규제(53%)와 경쟁업체 활동(53%)을 꼽았다.

Our take: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기술, 고객 선호도, 공급망 불안 등)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은 혁신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CEO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를 분석해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규제기관,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자까지 이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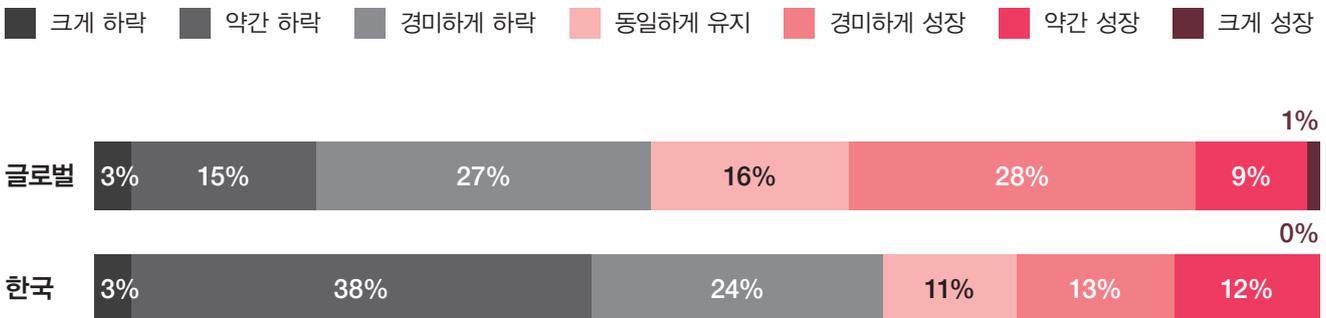
2024년 세계경제에 대한 각국 CEO의 전망은 엇갈렸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글로벌 CEO 가운데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38%로 전년(18%)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수(45%)가 경기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 않다.

Q. 귀하는 향후 1년간 세계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 귀하는 향후 1년간 세계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변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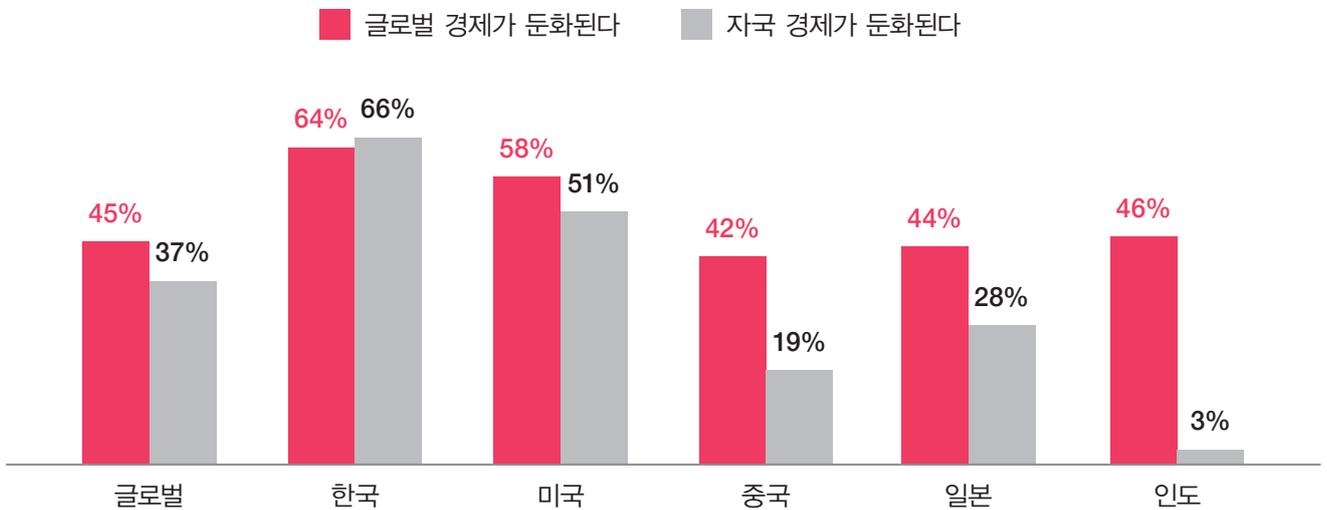


Base: All respondents (2014=1344, 2015=1322, 2016=1409, 2017=1379, 2018=1293, 2019=1378, 2020=1581, 2021=1779, 2022=4446, 2023=4410, 2024=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한국의 CEO는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강하다.

한국 CEO의 64%가 2024년 세계경제 둔화를 전망했으며, 이는 글로벌 CEO 평균(45%)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 CEO는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강했는데, 중국·인도의 경영자가 자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다.

Q. 향후 1년간 세계경제 및 귀하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주요 비교 대상은 한국 CEO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이며, 자세한 결과는 Appendix 참조

Viewpoint

주요 경제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에도 국내 CEO의 경기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높은 대외 의존도, 인구 고령화 등)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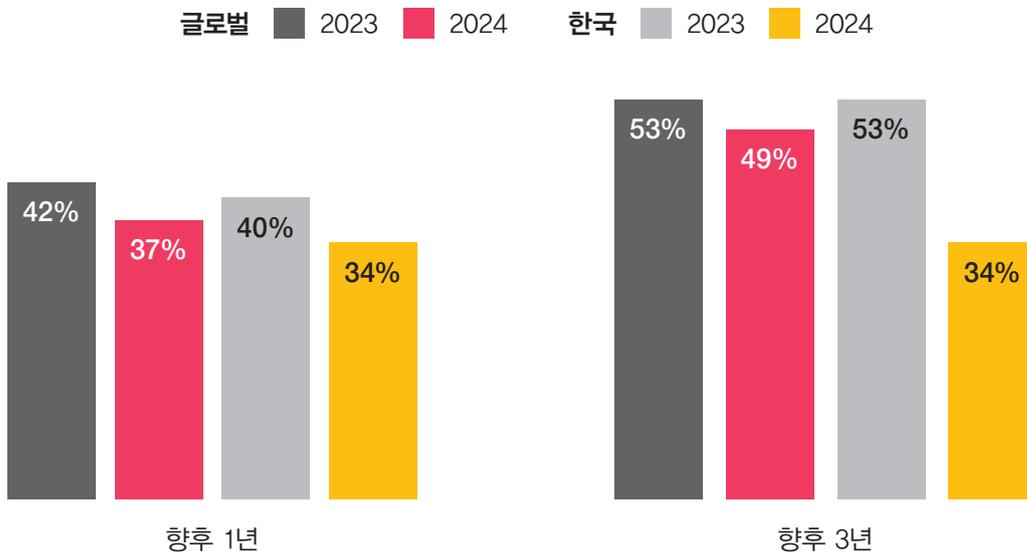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 (IMF, 2023.10)

	글로벌	한국	미국	중국	EU
팬데믹 이전 (2015~2019)	3.4	2.8	2.4	6.7	2.0
팬데믹 이후 (2020~2023)	2.5	1.9	1.8	4.7	0.9
2023E	2.9	1.4	2.1	5.0	0.7
2024E	3.0	2.2	1.5	4.2	1.2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

글로벌 CEO의 37%만이 1년 후 수익에 대해 확신했으며, 이는 지난해 조사(42%)보다 떨어진 수치다. 3년 후 매출에 대한 전망도 유사한 모습(전년 대비 4%p 하락)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도 동일하다. 특히 한국 CEO는 3년 후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큰 폭(전년 대비 19%p 하락)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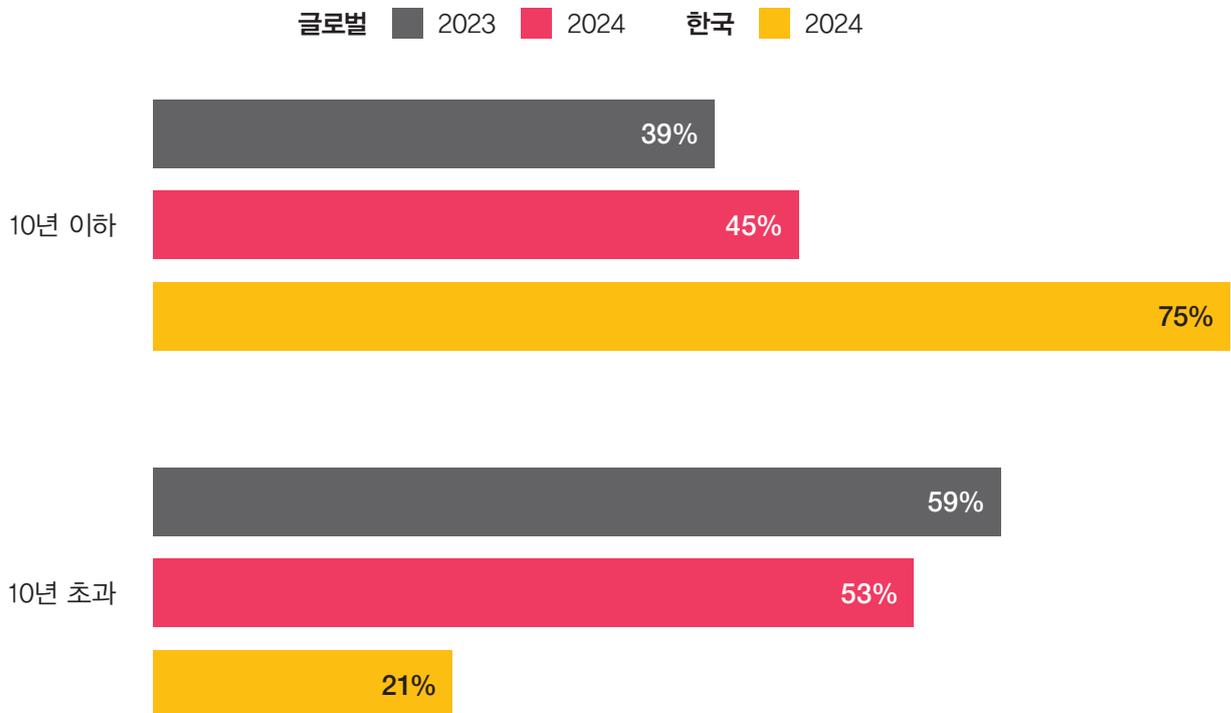
Q. 귀하는 향후 회사의 매출 성장 전망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매우 확신함’, ‘전적으로 확신함’이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 CEO는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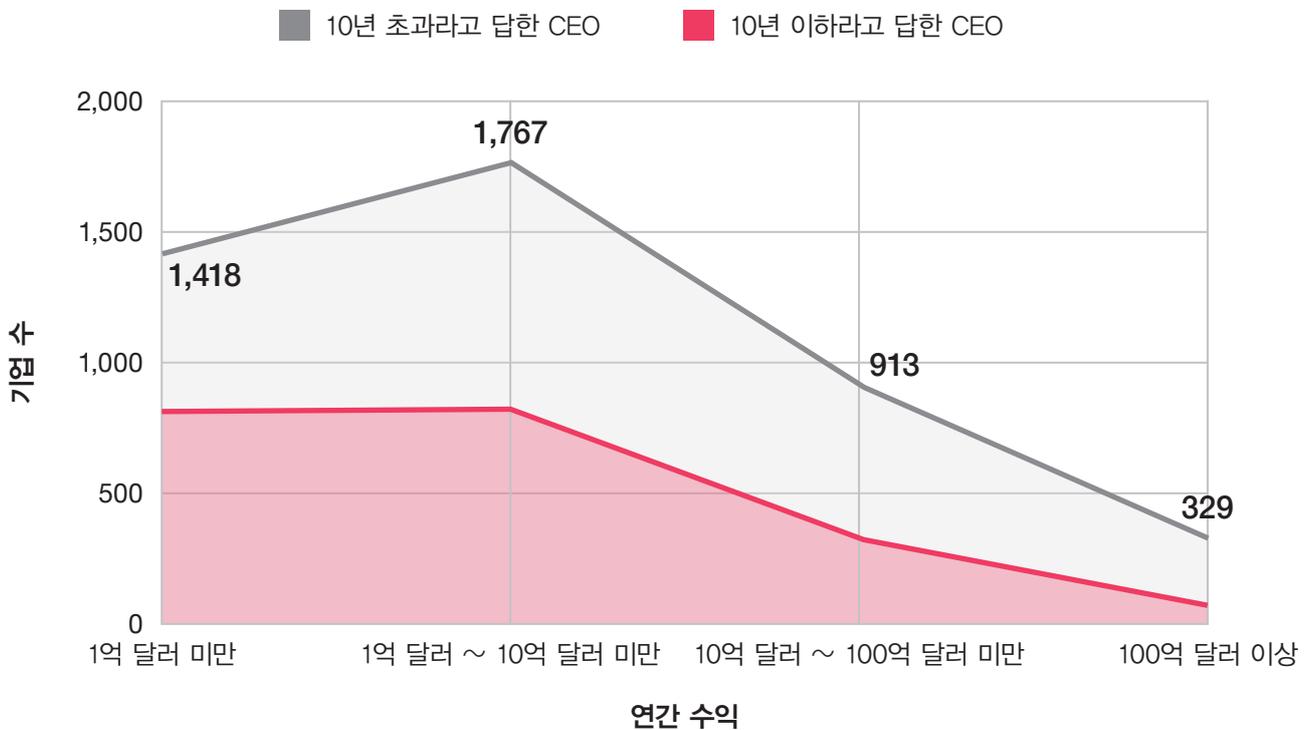
한국 CEO 중 75%는 자신이 속한 기업이 그대로 운영된다면 10년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는 글로벌(45%)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글로벌 이슈에 민감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국내 CEO들은 경제환경 변화(기술 발전, 기후대응, 소비자 선호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Q. 귀하의 회사가 현재의 추세로 계속 운영된다면, 사업 수익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모가 작은 기업의 CEO일수록, 기업 생존이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Q. 귀하의 회사가 현재의 추세로 계속 운영된다면, 사업 수익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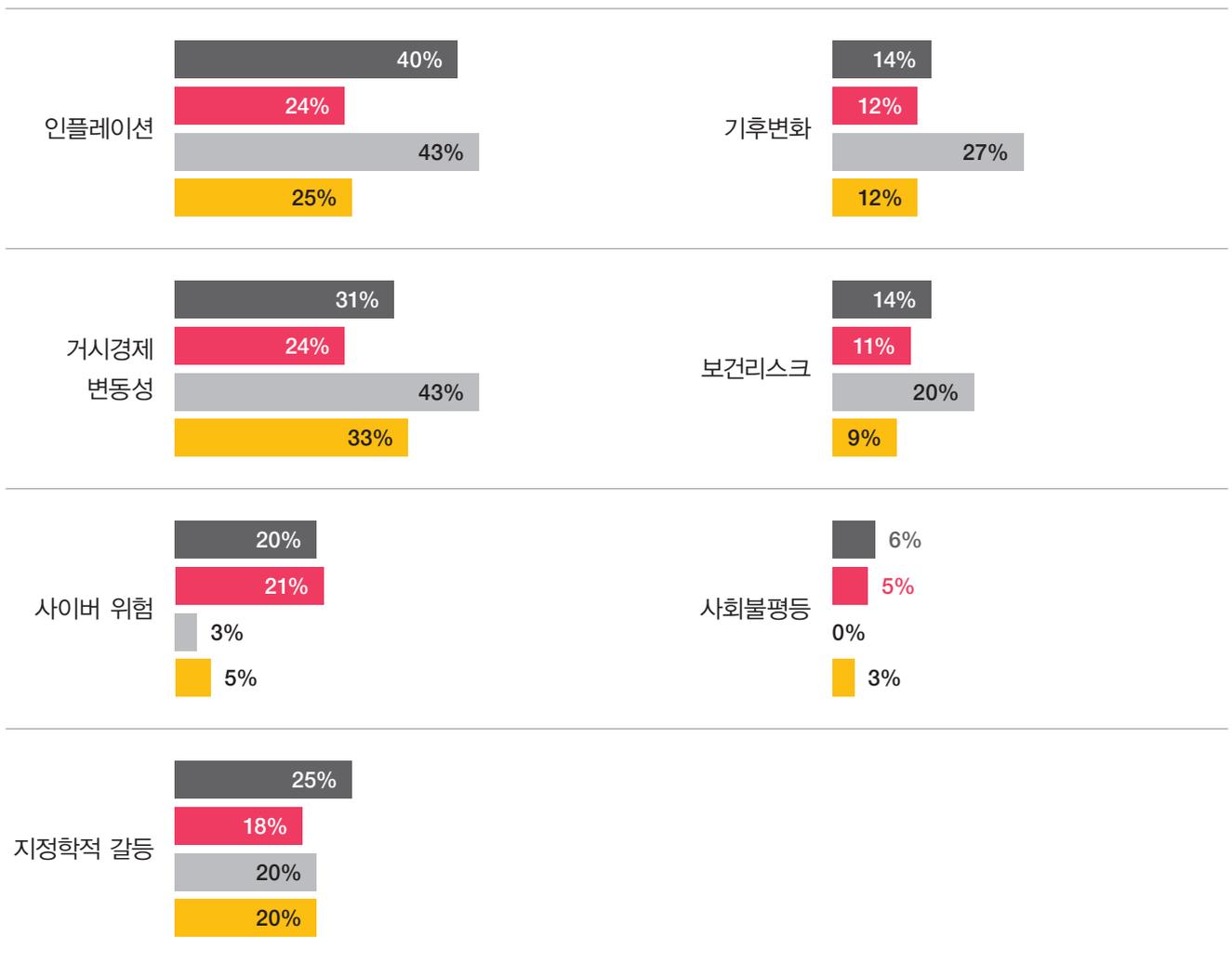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주요 리스크에 대한 우려 수준은 전년보다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기대감에 글로벌과 한국 모두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폭(글로벌 16%p, 한국 18%p)으로 감소했다. 또한 주요 경제 환경 변화(고금리, 리오프닝, 환경규제)에 적응함에 따라, 거시경제 변동성, 보건리스크 등에 대한 CEO들의 경계심도 낮아졌다.

Q. 귀하의 회사는 향후 1년간 다음과 같은 핵심적 위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 2023 ■ 2024 한국 ■ 2023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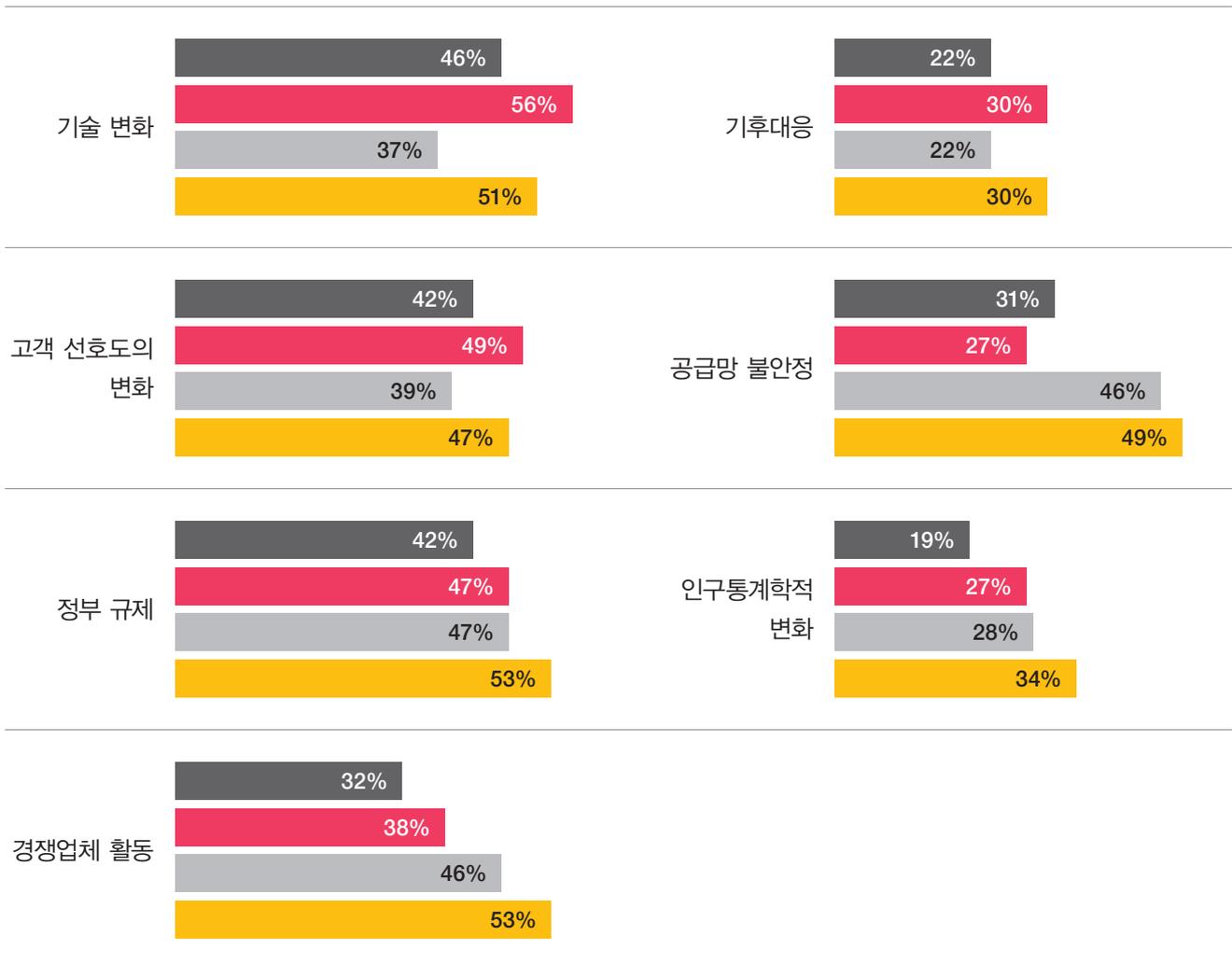
Notes: *Exposure is defined as probability of significant financial loss
 Base: All respondents (2023=4410, 2024=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통적으로 혁신의 주요 동인(기술·고객 선호도 변화, 정부규제, 기후대응 등)이 앞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향후 3년간 기업 경영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올 요인으로 정부 규제와 경쟁업체 활동을 꼽았다.

Q. 다음 각 항목들은 지난 5년 및 향후 3년간, 귀하 회사의 가치 창출, 전달, 확보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습니까(혹은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까)?

글로벌 ■ 지난 5년 ■ 향후 3년 한국 ■ 지난 5년 ■ 향후 3년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다가오는 실존적 변화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불러일으킬 메가트렌드인 기후변화, 기술 혁신(생성형 AI)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회와 위협 요소를 짚어봤습니다.

3.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CEO의 65%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51%는 기후 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응답했다.
- 한국 CEO의 38%는 재무계획 반영, 교육, 솔루션 투자 등에서 기후대응 전략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30%)보다 높다. 반면 한국 CEO의 43%(글로벌 41%)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할 때 다른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을 용인한다고 답했다.

Our take: 기후변화는 CEO가 스스로 혁신하도록 압박하는 핵심 메가트렌드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CEO는 많지 않았습니다. 탈탄소화, 기후적응 등 보다 포괄적인 기후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CEO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재무 수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4. AI가 가져올 기회

- CEO들은 생성형 AI가 단기적으로는 품질 개선, 향후 3년 안에는 회사의 가치 창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 CEO는 생성형 AI 도입을 통한 변화로 업무 효율성 증가(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글로벌 평균(64%) 대비 더 높은 수준이다.

Our take: 생성형 AI는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의하며, 산업 전반에 대대적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CEO는 잠재적 위험과 새로운 기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직원을 생성형 AI 도입 프로세스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CEO가 AI 관련 계획과 결정에 보다 투명하고, 목적 지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면 AI를 경계하는 직원도 편안하게 AI를 실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혁신을 이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AI로 인한 위협

- CEO들은 생성형 AI 도입의 부작용으로 사이버보안(64%)과 거짓정보 확산(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 CEO의 3분의 1은 향후 1년 내 생성형 AI로 인해 특정 직원 또는 고객 그룹에 대한 편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법적 책임 및 평판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Our take: 조직이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AI를 사용하기 위해 CEO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혁신의 속도 및 새로운 규범·규정을 수립하는 데 따른 물리적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생성형 AI를 관리하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기업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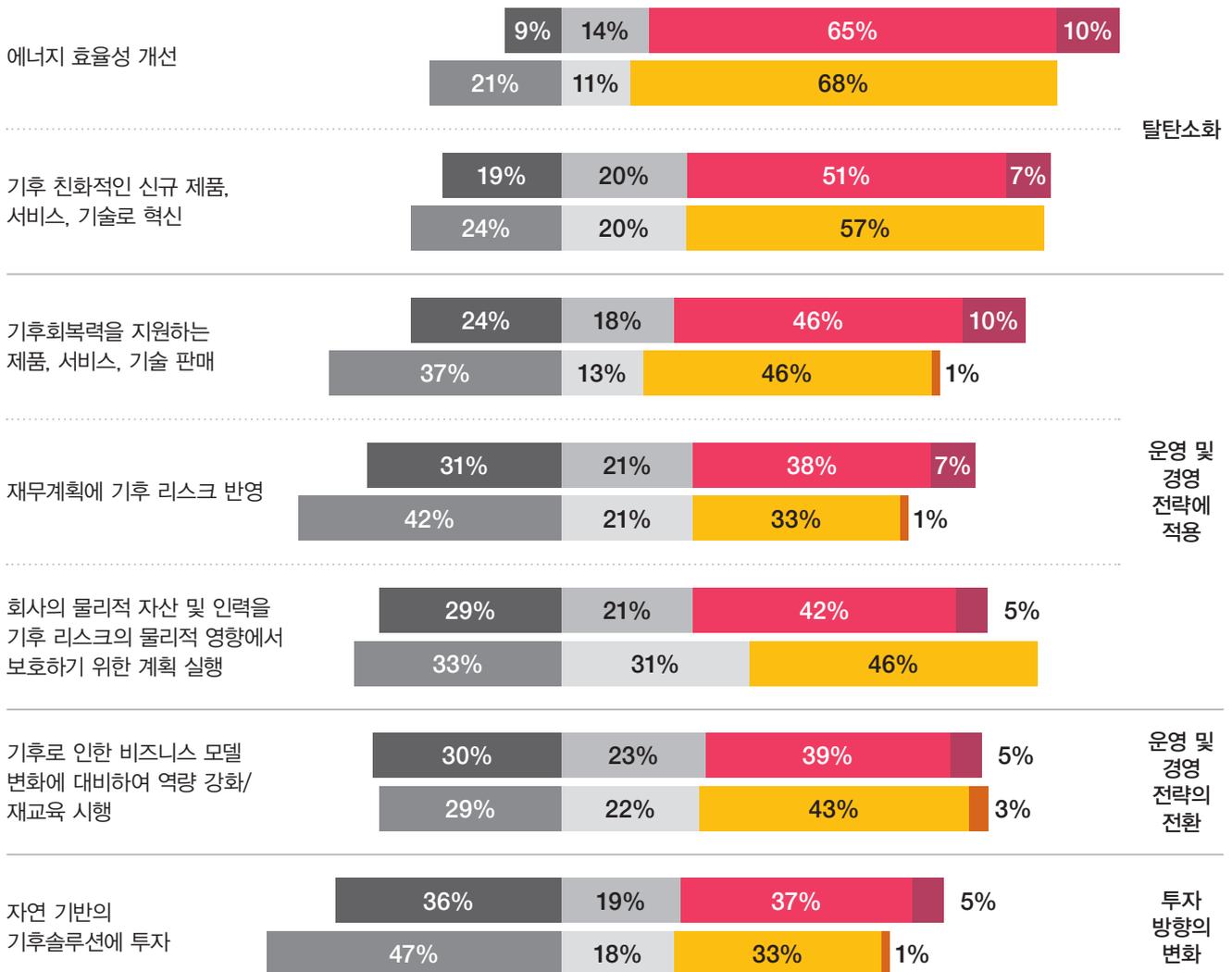
3. 기후변화 대응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조치(재무계획 반영·교육·솔루션 투자 등)는 진행이 더딘 편이다.

한국은 글로벌 평균보다 기후 관련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다. 특히 탈탄소화 이외의 영역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8%로 글로벌 평균(30%)보다 높다.

Q. 다음은 기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입니다. 각 전략에 대한 귀하 회사의 진행 단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 계획이 없음 ■ 진행중 ■ 계획했으나 시작하지 않음 ■ 완료됨
한국 ■ 계획이 없음 ■ 진행중 ■ 계획했으나 시작하지 않음 ■ 완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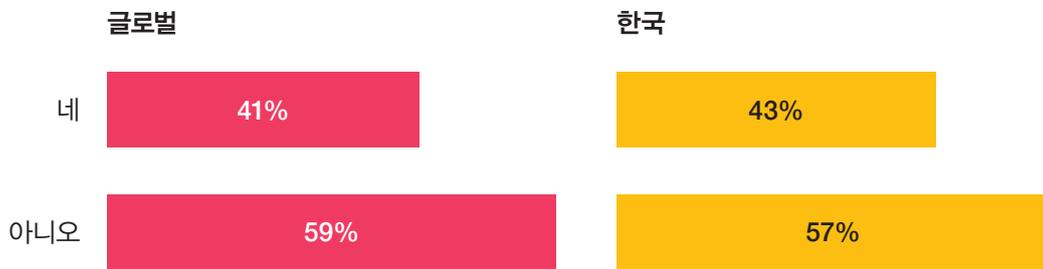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3. 기후변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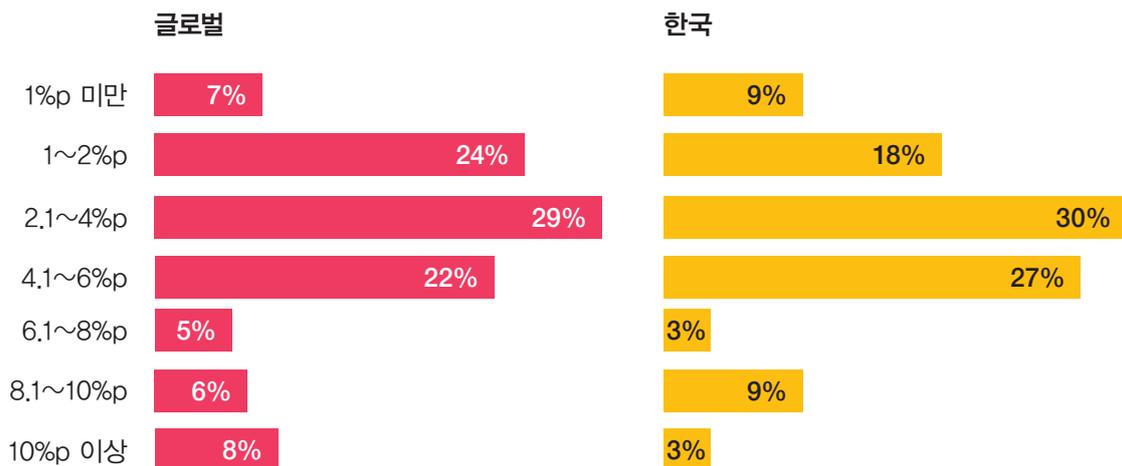
기후 분야 투자 수익률에 대한 한국 CEO의 수용 폭은 넓은 편이다. 향후 기후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 CEO의 43%(글로벌 41%)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할 때 다른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을 용인한다고 답했다. 단기 수익률이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기후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Q.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회사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평가할 때 다른 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Q. 기후 친화적 투자의 허용 가능한 수익률은 다른 투자에 비해 얼마나 낮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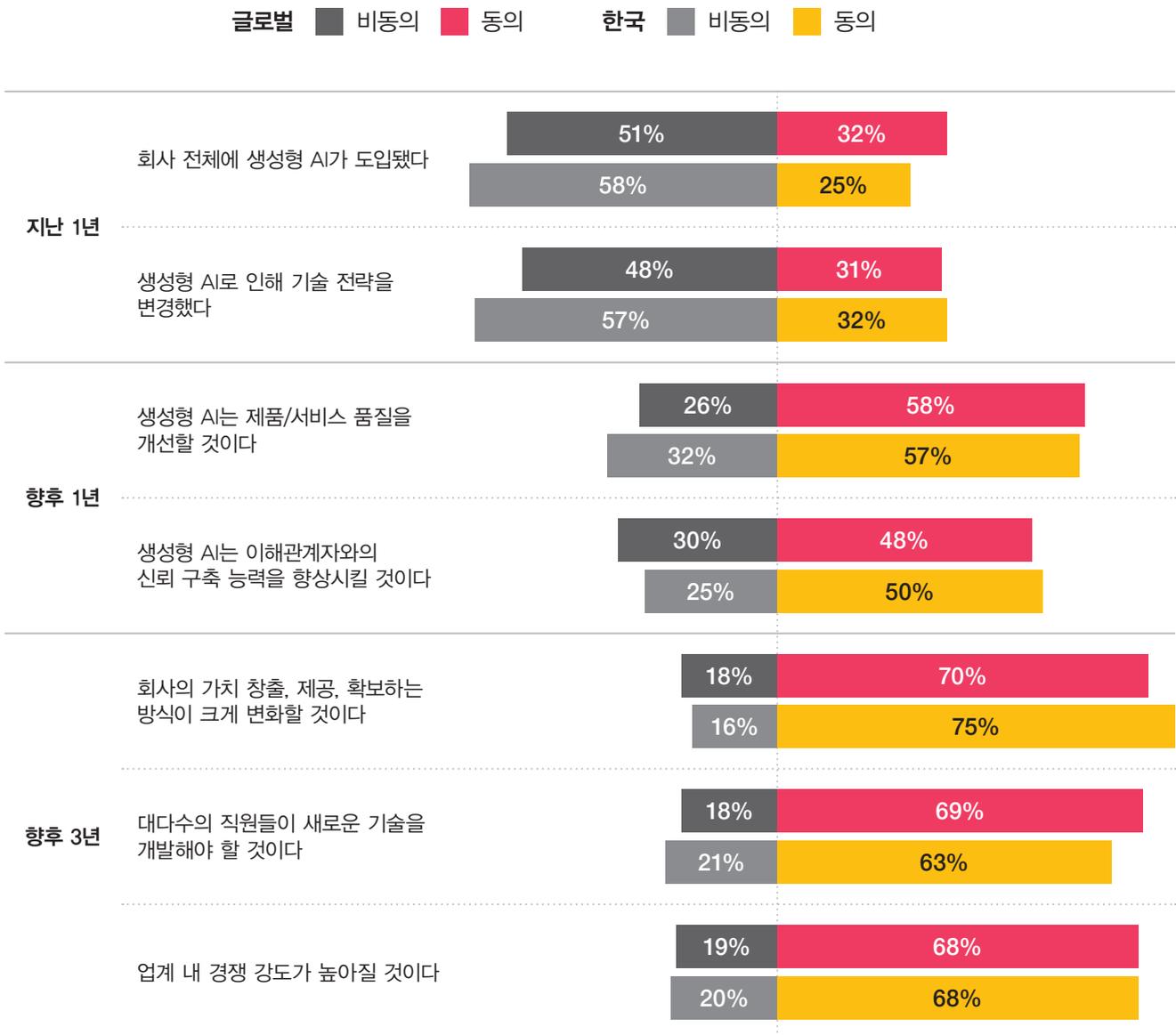


Notes: e.g., transitioning to energy-efficient operations, developing greener products and services, implementing emission-reducing technologies)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한국 CEO는 향후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나, 준비는 미흡하다.

한국CEO의 74%(글로벌 70%)는 향후 3년 내 생성형 AI로 인해 회사의 가치 창출 방식이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생성형 AI의 도입 비율은 25%에 불과하며 글로벌 평균(32%)보다 낮았다.

Q. 다음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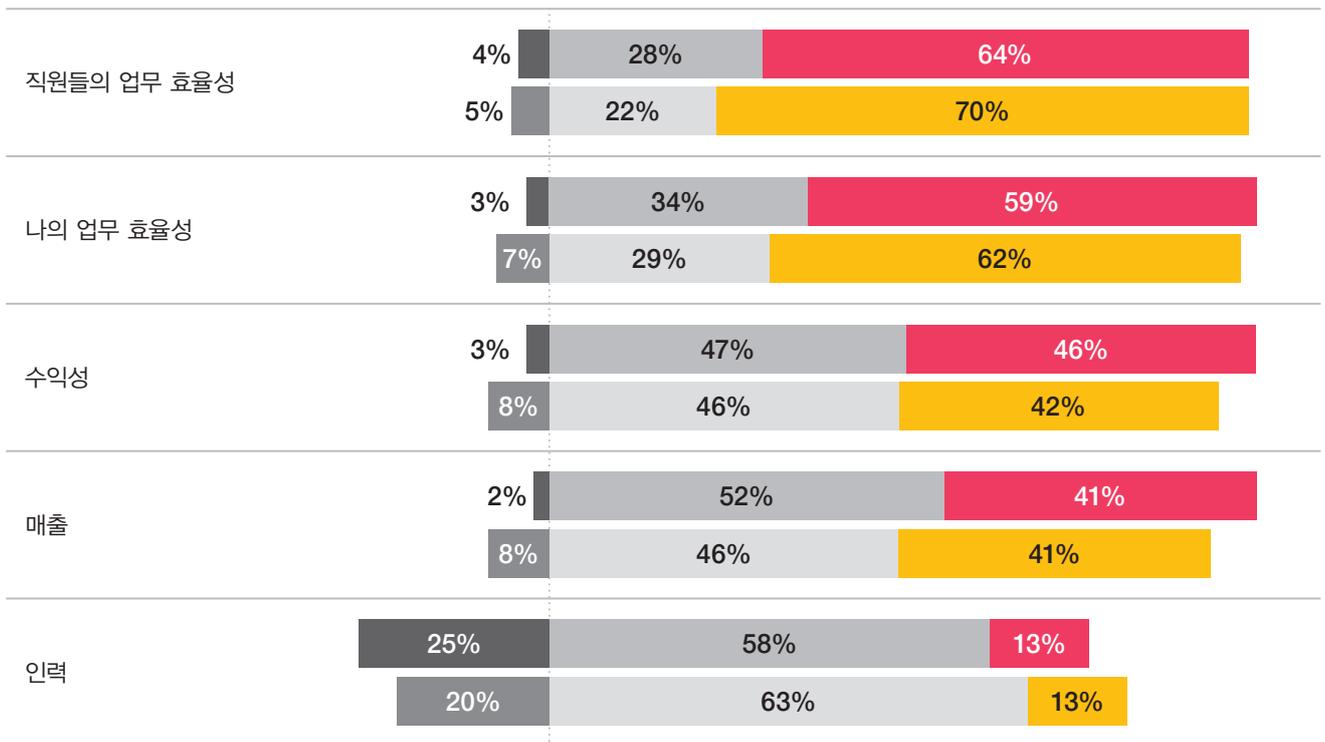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한국 CEO는 생성형 AI 도입의 긍정적 영향 가운데, 업무 효율성 개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 CEO는 생성형 AI 도입을 통한 변화로 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가(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글로벌 평균(64%) 대비 더 높은 수준이다. 반면 수익성 개선 기대는 42%로, 글로벌(46%)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Q. 생성형 AI가 향후 1년 내에 귀하의 회사에서 다음 항목들을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글로벌 ■ 감소(-5% 이상) ■ 변화 없음 ■ 증가(5% 이상) 한국 ■ 감소(-5% 이상) ■ 변화 없음 ■ 증가(5%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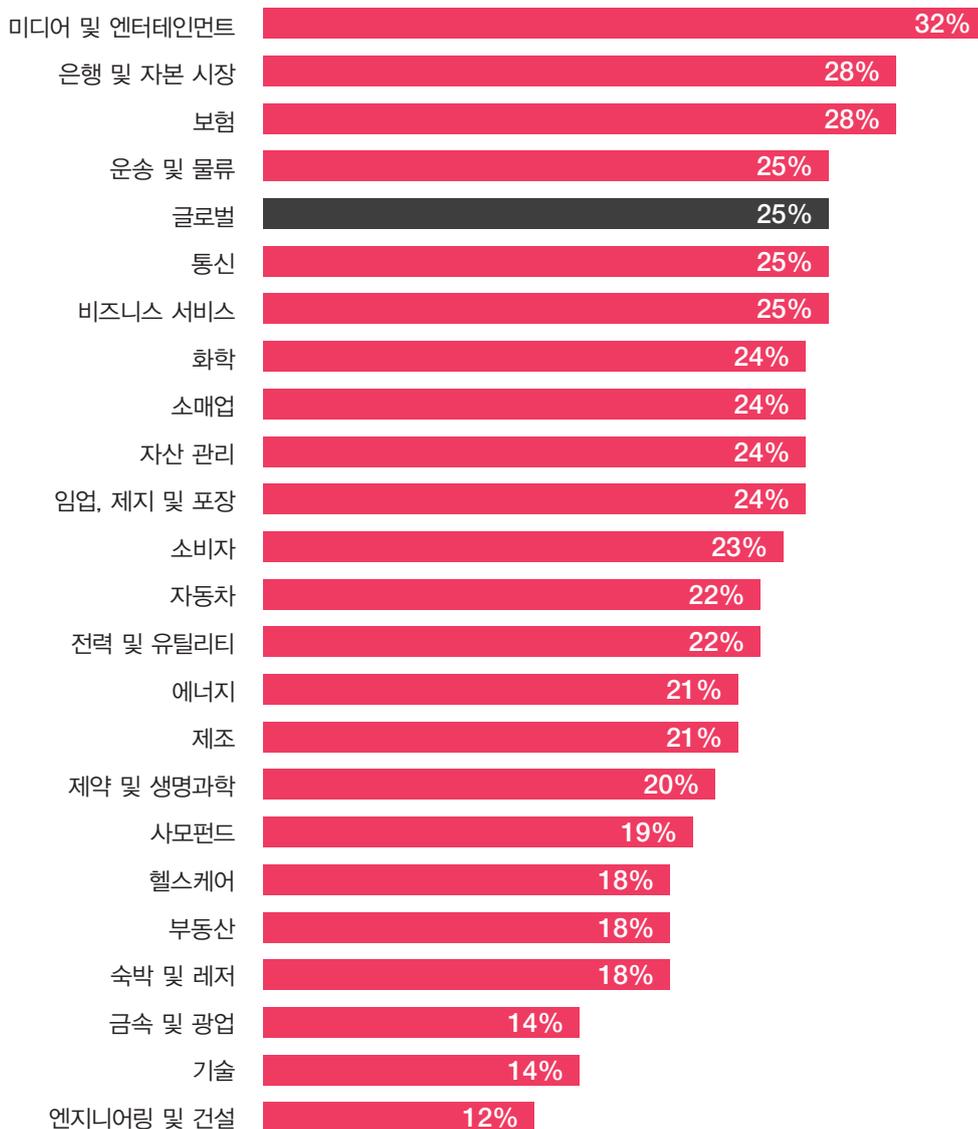


Notes: Percentages shown may not total 100 due to rounding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로, 일부 경영진은 AI 도입시 인력 감축을 예상한다.

한국 CEO의 20%(글로벌 25%)는 생성형 AI로 인해 향후 1년 안에 5% 이상의 인력 감축을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기준) 미디어 및 엔터·금융·운송 부문의 인력감소가 크고, 건설 및 부동산·테크·레저·헬스케어 부문의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레저·헬스케어 등은 디지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AI 도입에 따른 변화도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Q. 생성형 AI가 향후 1년 내에 귀하의 회사에서 '직원 수'를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5% 또는 그 이상 감소한다고 응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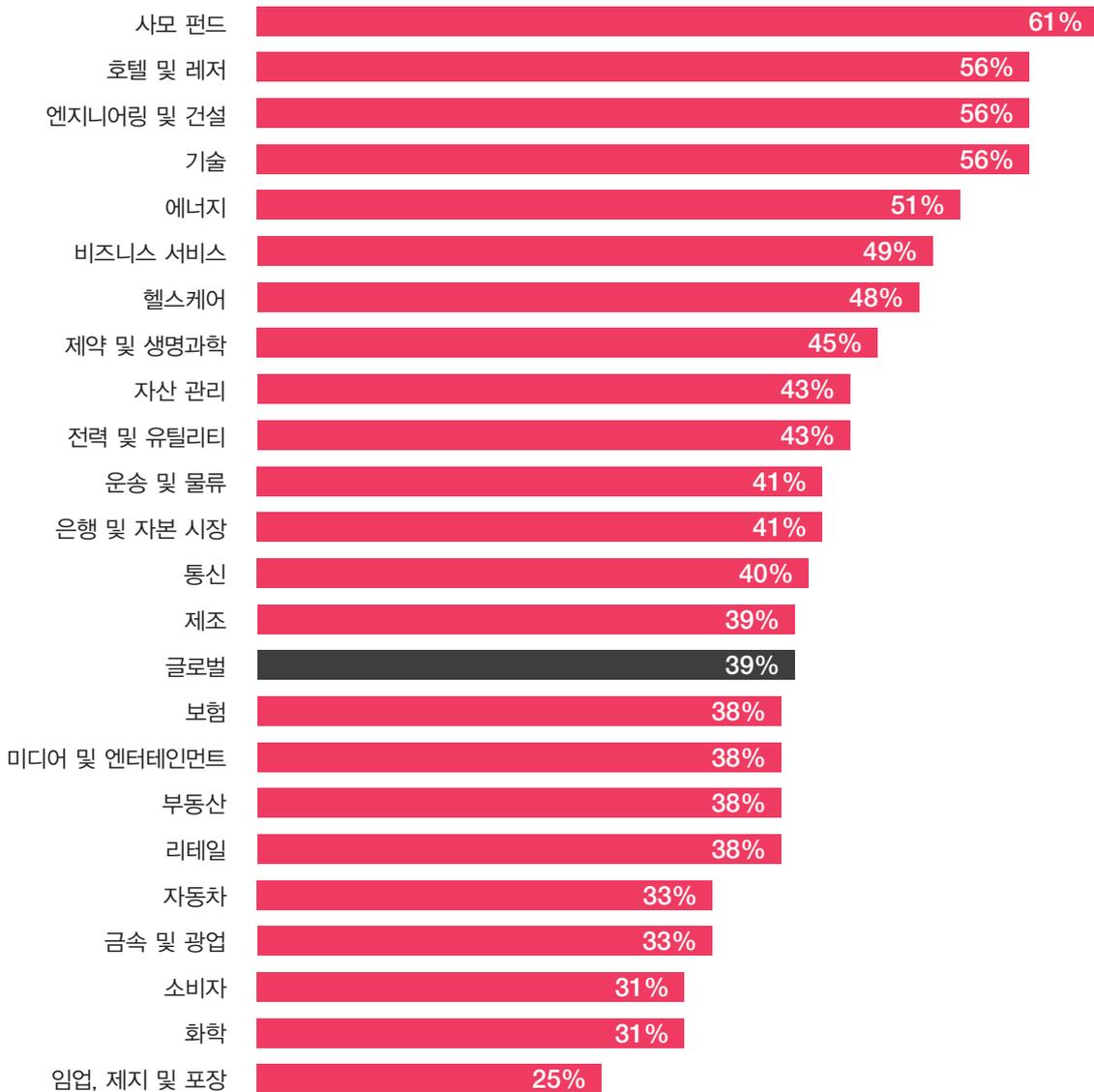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다만, 향후 1년간 완만한 경기 회복에 따른 채용 증가로, 생성형 AI 도입이 가져올 인원 감축 여파는 상쇄될 것이다.

Q. 귀하의 회사는 향후 1년간 인력이 어느 정도 감소 또는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5% 또는 그 이상 증가한다고 응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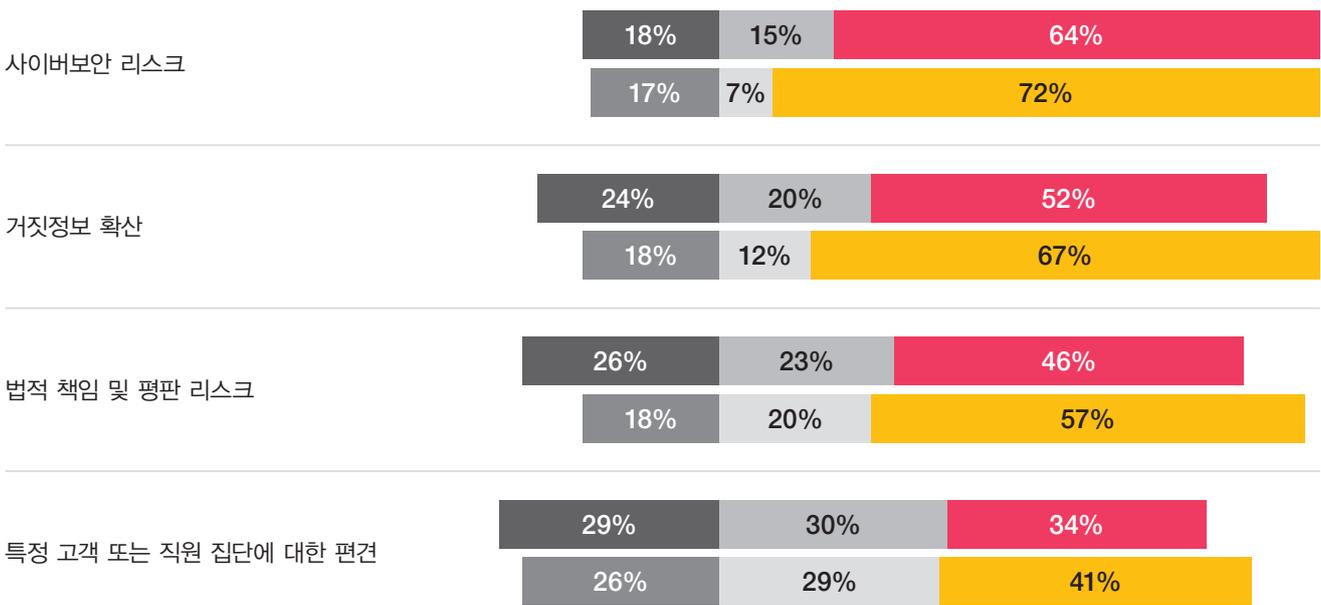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CEO들은 생성형 AI 도입의 부작용으로 사이버보안과 거짓정보 확산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 CEO의 72%(글로벌 64%)는 생성형 AI로 인해 사이버보안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거짓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67%(글로벌 52%)가 우려했다. 한국의 경영진은 글로벌 대비 AI도입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리스크에 대한 염려도 높다.

Q. 생성형 AI가 향후 1년 내 귀하의 회사에서 다음 사항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글로벌 ■ 비동의 ■ 동의도 비동의도 하지 않음 ■ 동의
 한국 ■ 비동의 ■ 동의도 비동의도 하지 않음 ■ 동의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혁신을 위한 가이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6. 현재를 개선하는 혁신

- CEO의 64%는 기업 혁신을 가로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 환경을 꼽았다. 특히 한국 CEO는 더 높은 비율(74%)로 규제 환경이 혁신을 방해한다고 응답했다.
- CEO들은 혁신의 장애물 다수는 CEO 영향력 안에서 조절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CEO는 업무 효율성이 낮은 활동으로 이메일 작성, 급여처리, 의사 결정 회의 등을 꼽았으며, 혁신을 위해 이런 일상적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Our take: CEO들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더-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더 나은 업무 방식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 혁신과 관련된 활동(신기술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M&A 등)과 수익률 사이에는 긍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의 재할당 수준이 높을수록, 혁신의 강도가 높고, 수익률 역시 높아진다.
- 합작투자·제휴 등 업계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 CEO의 80%는 향후 3년 내 M&A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Our take: 최적의 혁신 방안은 각 기업의 전략, 운영 모델, 산업 상황, 경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자원 재분배, 합작투자 등을 통한 비즈니스 생태계 포용은 CEO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혁신 방안입니다.

8. 기후투자에 대한 목표 수익률 조정

- CEO의 30%는 향후 3년간 기후변화가 비즈니스 모델 재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과거 5년(22%)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로, CEO의 41%가 기후 친화적 투자에 대해서 다소 낮은 수익률을 용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Our take: 수익률은 기업의 자원 배분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CEO들이 기후투자 관련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있는 점은 기후대응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장기적인 가치와 성과에 중점을 두는 CFO는, CEO가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9. 새로운 기회 포착

- 회사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낮은 CEO일수록, 그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Our take: 기업 운영에 '전면적 변화'가 요구되는 변곡점에서, CEO들은 경쟁사에 맞서 비즈니스를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근본적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모든 리더가 기존의 통념에 도전해야 하지만, 이는 산업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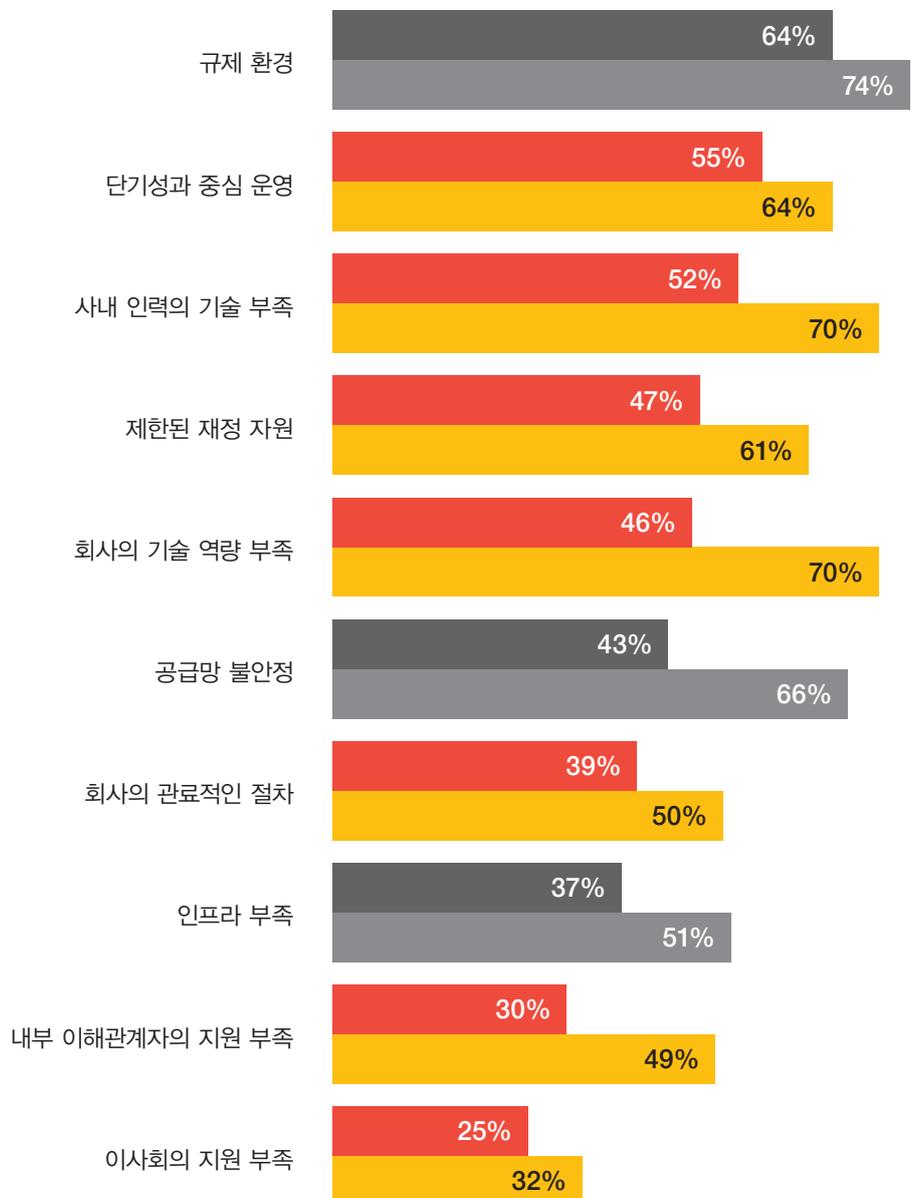
혁신의 걸림돌 가운데 상당 부문은 CEO가 통제할 수 있다.

한국 CEO는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규제 환경(74%), 사내 인력의 기술 부족(70%), 공급망 불안정(66%) 등을 꼽았으며, 이런 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규제 환경, 공급망 불안정 등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상당 부문은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고 답했다.

Q.

귀하의 회사가 가치를 창출, 전달, 확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다음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표시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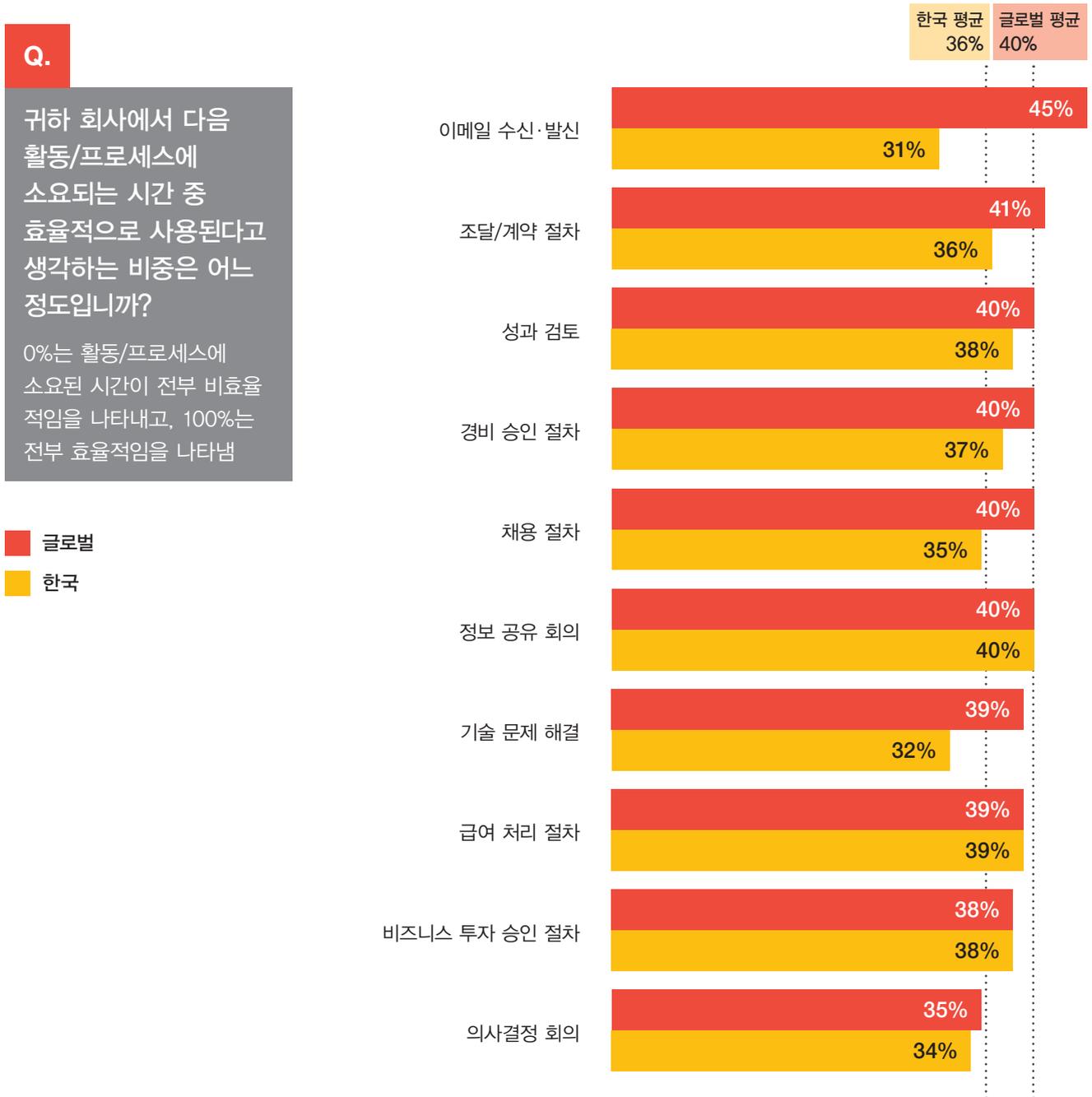
글로벌 ■ 외부적 장애 요인
■ 내부적 장애 요인
한국 ■ 외부적 장애 요인
■ 내부적 장애 요인



Base: All respondents (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혁신을 가로막는 업무 비효율성 또한 CEO의 경영 방침에 따라 개선 가능하다.

한국 CEO는 회사 내 업무 효율성 수준이 약 36%라고 판단하며, 이는 글로벌(40%) 대비 낮은 수치이다. 특히 이메일 작성(31%), 급여처리(32%), 의사결정회의(34%)에서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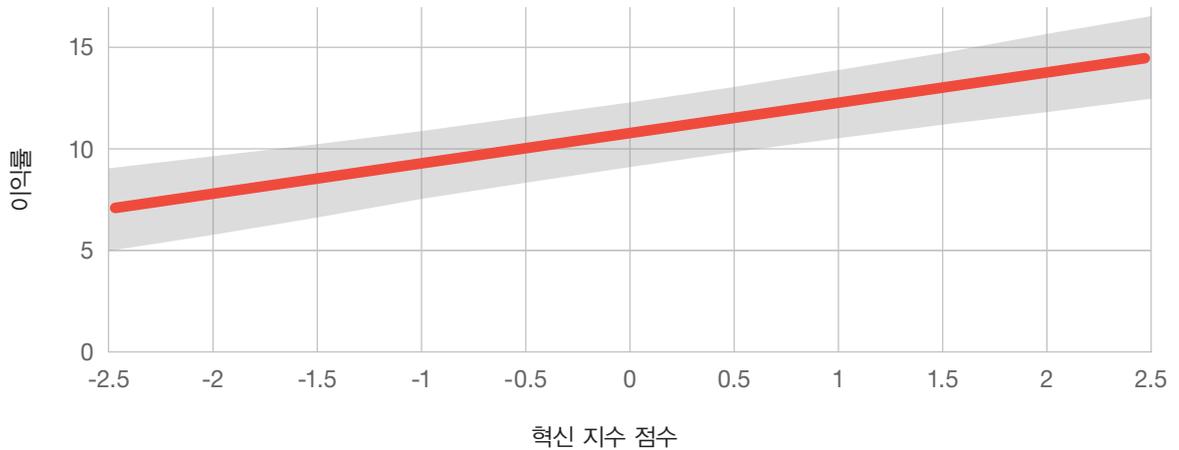


Notes: Question text amended for clarity; bars depict mean values
 Base: All respondents who provided a valid response (excluding Don't know) (4248-4491).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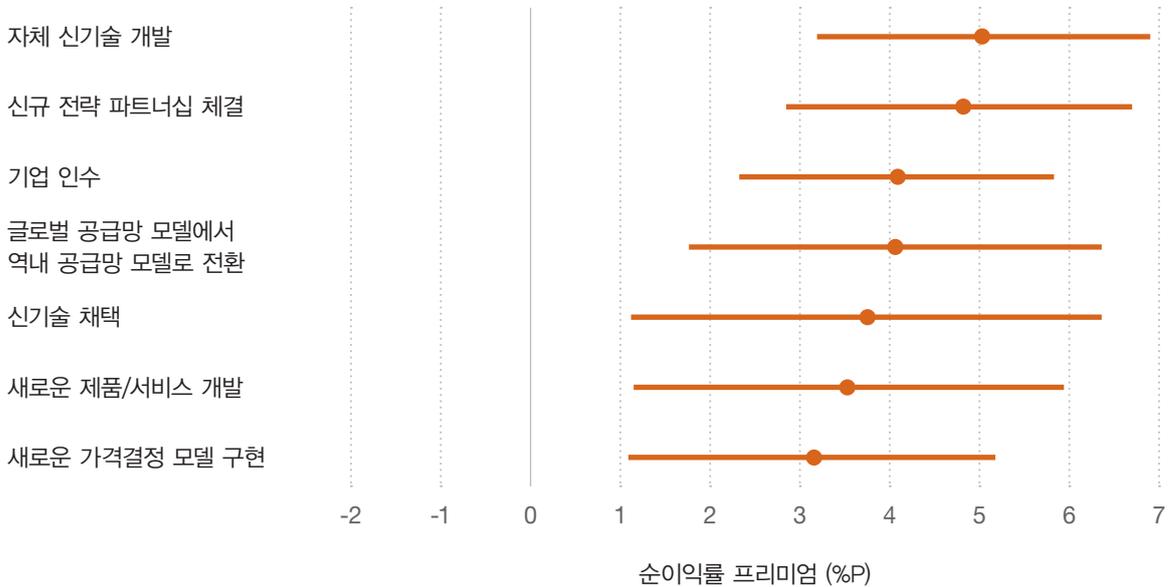
혁신 수준이 높을수록 수익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혁신과 기업의 수익률 사이에는 긍정적(+) 연관성이 있다. 항목별로는 신기술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 및 기업 인수, 공급망 모델 전환이 수익률 개선(4%p 이상)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신제품·서비스 개발, 새로운 가격결정 모델 등도 수익률(3%p 이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별



Notes: Index score values are derived from a factor analysis of the extent of impact the following actions had on how companies create, deliver, and capture value: adopted new technologies for our firm that enhanced our capabilities; developed novel products/services; formed new strategic partnerships that enhanced our capabilities; developed a new technology in-house; implemented novel pricing models; made acquisitions that enhanced our capabilities; and shifted from a global supply chain model to a regional one. Index score value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from the mean—a higher score indicates more reinvention; the red line represents predictions from regression modelling, adjusted for industry, territory and company size; the shaded region represents the 95% credible interval.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기업 자원의 재분배 수준이 높을수록 혁신의 정도도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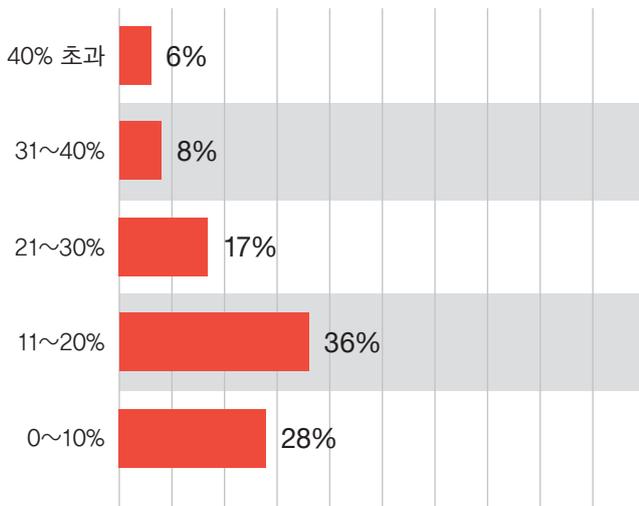
CEO의 3분의 2는 매년 20% 이하의 자원만 재할당한다. 반면, 15%의 CEO는 회사 자원의 30% 이상을 재할당하는데, 재분배 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혁신이 나타난다.

Q. 귀하 회사의 경영진은 해마다 회사의 자원(재무 및 인력)을 어느 정도 비율로 재분배하십니까?

Q. 해당 조치가 지난 5년간 귀하 회사가 가치를 창출, 전달, 확보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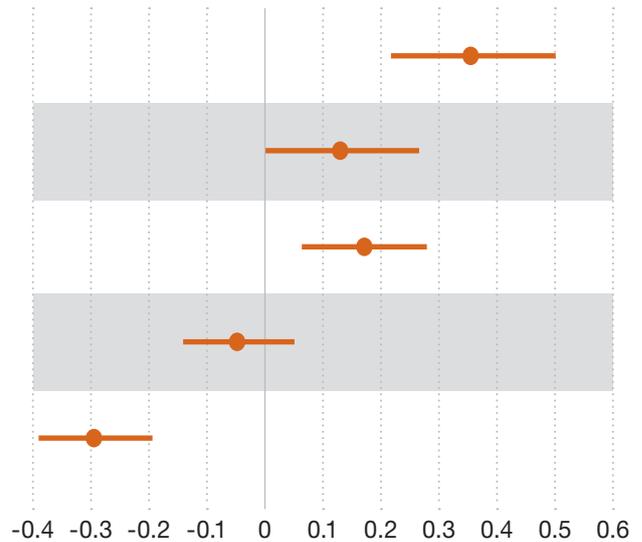
현재 연간 재분배 수준

회사의 재무 및 인적 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혁신 레벨

혁신 활동의 집계된 지수에 따른 연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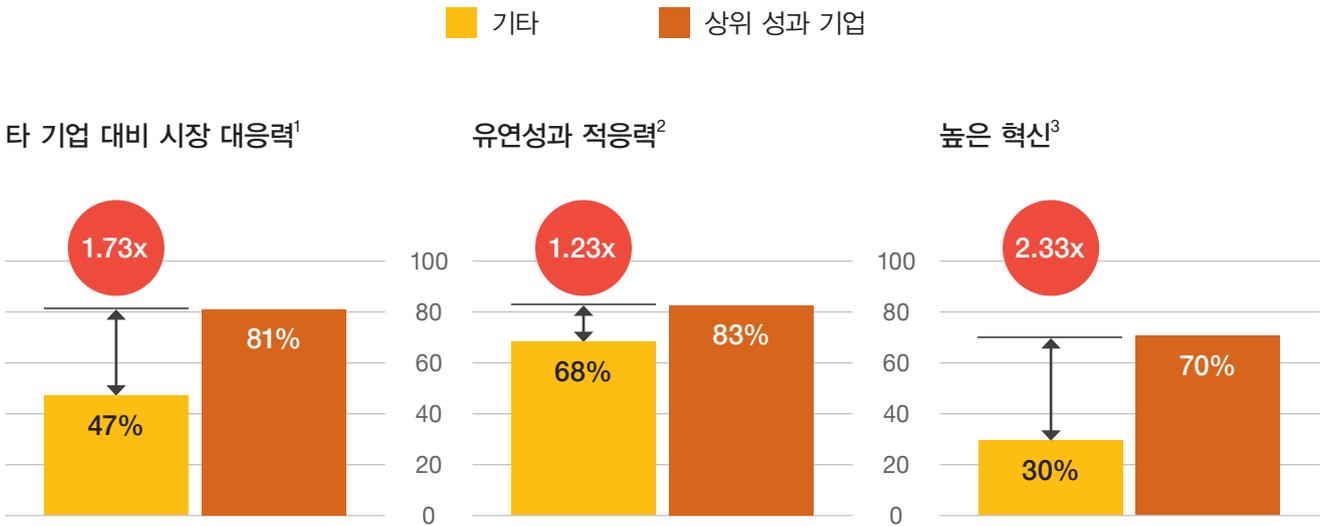


Notes: Index score values are derived from a factor analysis of the extent of impact the following actions had on how companies create, deliver, and capture value: adopted new technologies for our firm that enhanced our capabilities; developed novel products/services; formed new strategic partnerships that enhanced our capabilities; developed a new technology in-house; implemented novel pricing models; made acquisitions that enhanced our capabilities; and shifted from a global supply chain model to a regional one. Index score value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from the mean—a higher score indicates more reinvention; points are predictions from regression modelling, adjusted for industry, territory, and company size; the error bars represent 95% credible intervals.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포용은 혁신의 중요한 요소다.

업계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합작 투자 및 제휴 등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 생태계에 편입될 경우, 타 기업 대비 시장 대응력 향상(1.7배), 유연성과 적응력 증대(1.2배), 더 높은 혁신(2.3배)이 가능하다.



1. '보통이다' 또는 '상당히 빠르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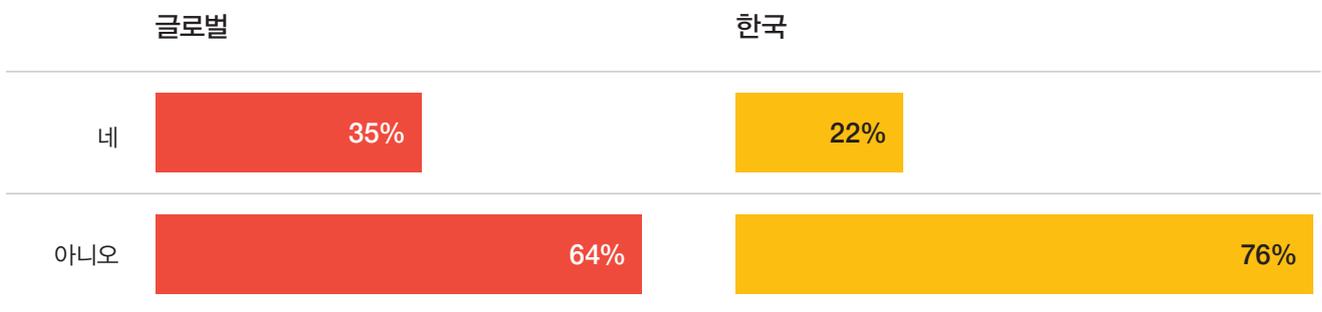
2. 수요 측면 및 공급 측면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유연성에 대해 '대체로 높다' 또는 '매우 높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3. 올해 매출의 60% 이상이 3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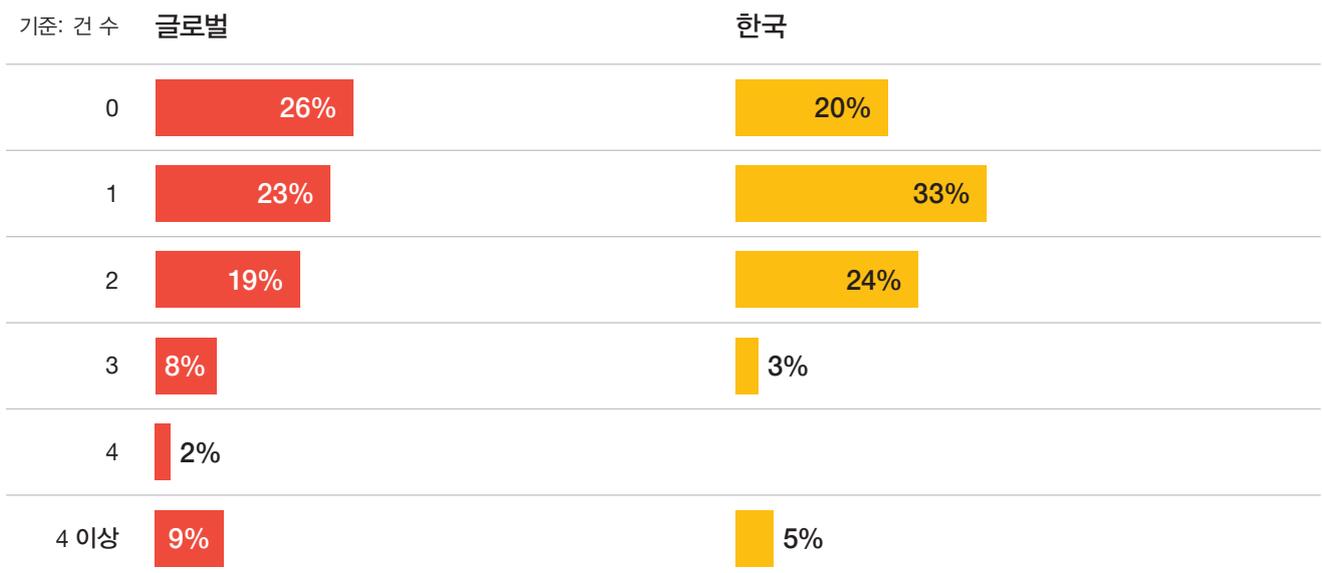
혁신의 주된 동력으로 M&A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글로벌 CEO의 74%, 한국 CEO의 80%가 향후 3년 내 기업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2건 이상(글로벌 38%, 한국 32%)을 예상한 비율도 높다.

Q. 귀하의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대규모 인수(자산의 10% 이상)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Q. 귀하의 회사는 향후 3년 동안 몇 건의 인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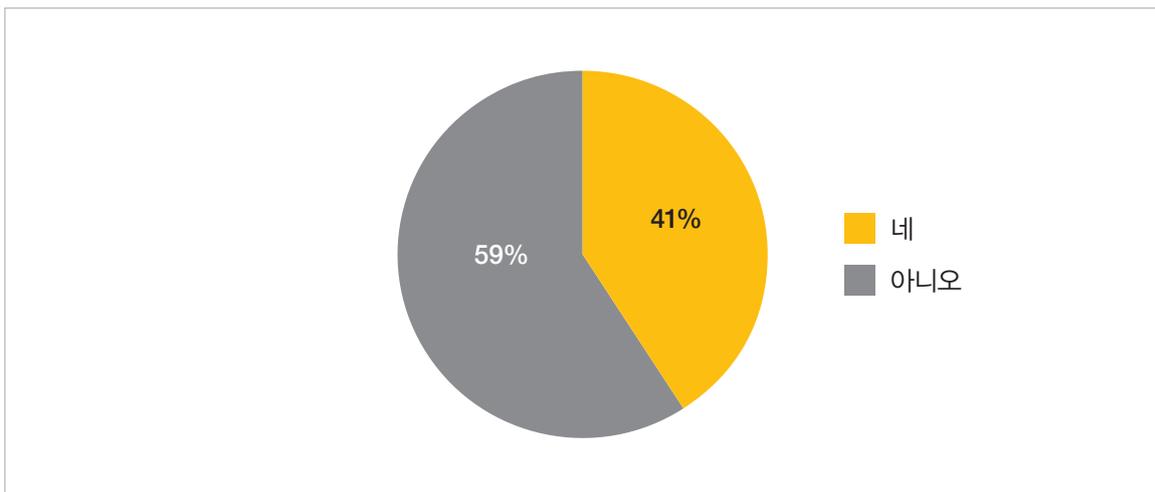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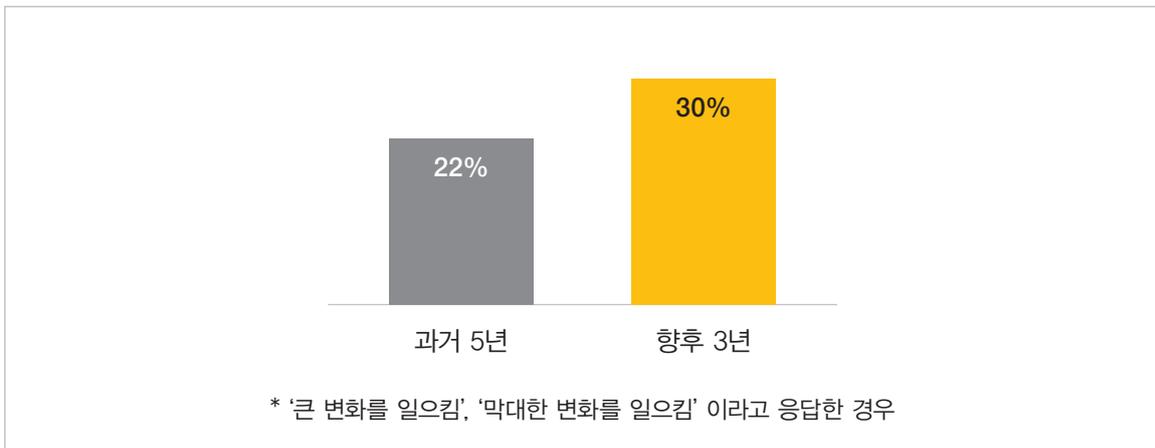


8. 기후투자에 대한 목표 수익률 조정

CEO들은 기후변화라는 메가트렌드에 맞서, 비즈니스 모델 재설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41%는 기후투자에 대해 다소 낮은 수익률을 용인한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이 진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Q. 기후변화는 지난 5년 및 향후 3년간, 귀하 회사의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입니까?

Q.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회사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평가할 때 다른 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Notes: Climate-friendly investments were defined as “e.g., transitioning to energy-efficient operations, developing greener products and services, implementing emission-reducing technologies”.

Base: All respondents (4702); then, those respondents whose company has accepted rates of return that were lower than for other investments (1929)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회사의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CEO일수록, 본인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더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의 방안을 실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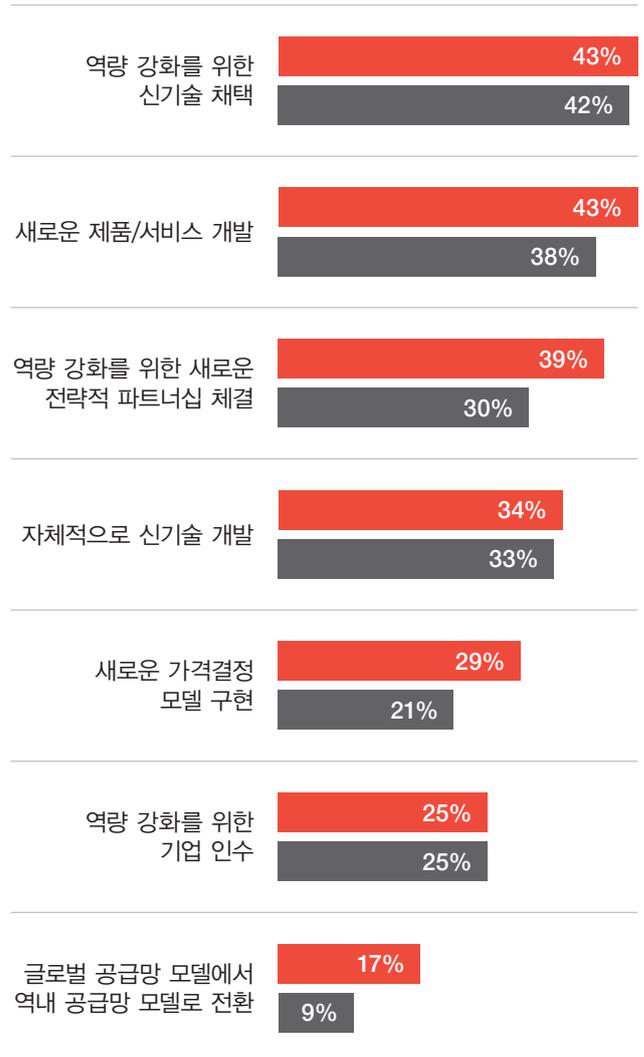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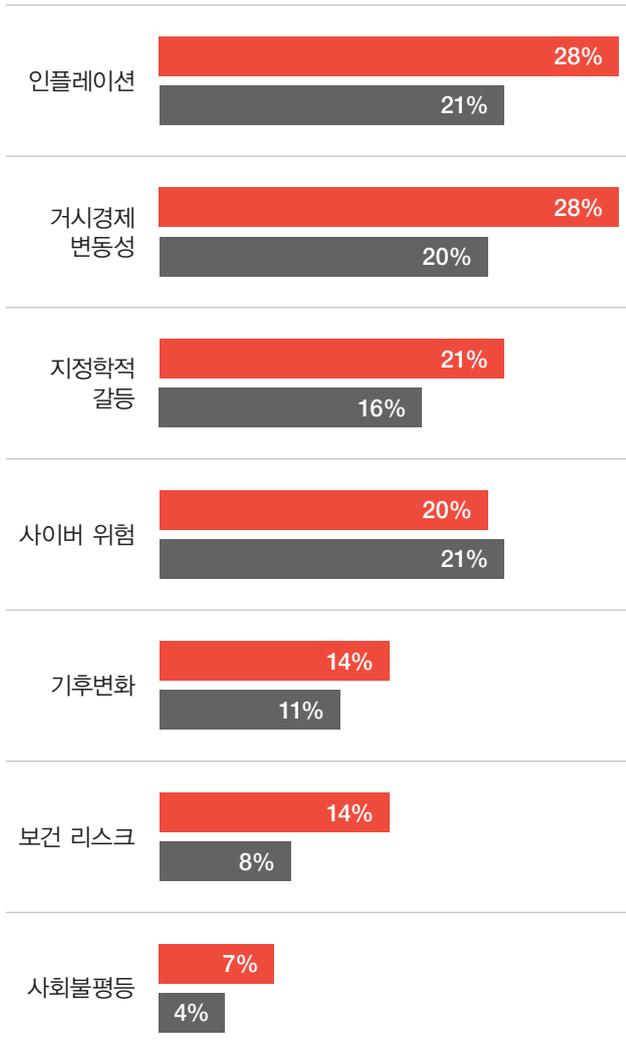
특히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공급망 모델 변화, 새로운 가격 모델을 구현한 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Q. 귀하의 회사는 향후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핵심적 위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다음 조치가 지난 5년 동안 귀하의 회사가 가치를 창출, 전달 및 포착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회사의 생존 가능 기간이 10년 이하라고 답한 CEO

회사의 생존 가능 기간이 10년 초과라고 답한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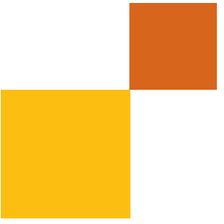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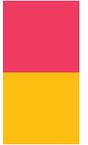
Notes: Exposure is defined as probability of significant financial loss
 Base: All respondents (10 years or less=2112, More than 10 years=2493)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해답은 혁신을 위한 변화에 있다

PwC는 이번 글로벌 CEO 서베이의 내용을 분석하며, 대다수의 CEO가 전략적 전환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현재 상황에 도전하는 리더십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PwC의 strategy+business에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를 위한 핵심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자자를 설득하고 동참시킨다.
- 나쁜 비용을 줄이고, 좋은 비용에 투자하며, 차별화된 역량을 개발한다.
- 기후 규제나 인공지능(AI)처럼 미래 성공에 중요한 사업 분야의 경영진에 전문가를 포함한다.
- 주요한 변화는 특정 부분의 리더가 담당하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 경영진이 주도한다.
-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진행 방식을 추적하며,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한다.

끊임없는 혁신의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CEO는 혼란 속에서도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급진적인 대담함과 놀라운 실용성을 결합한다면 전례 없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pendix

주요 5개 지역과의 설문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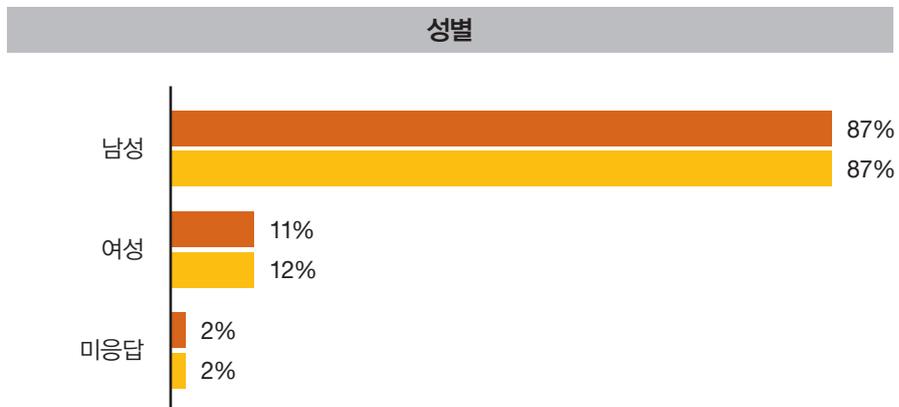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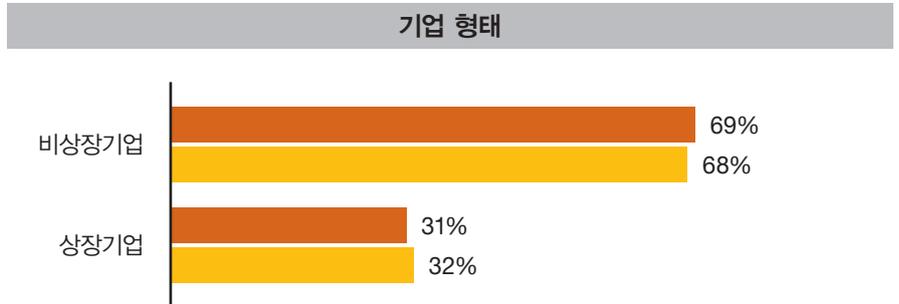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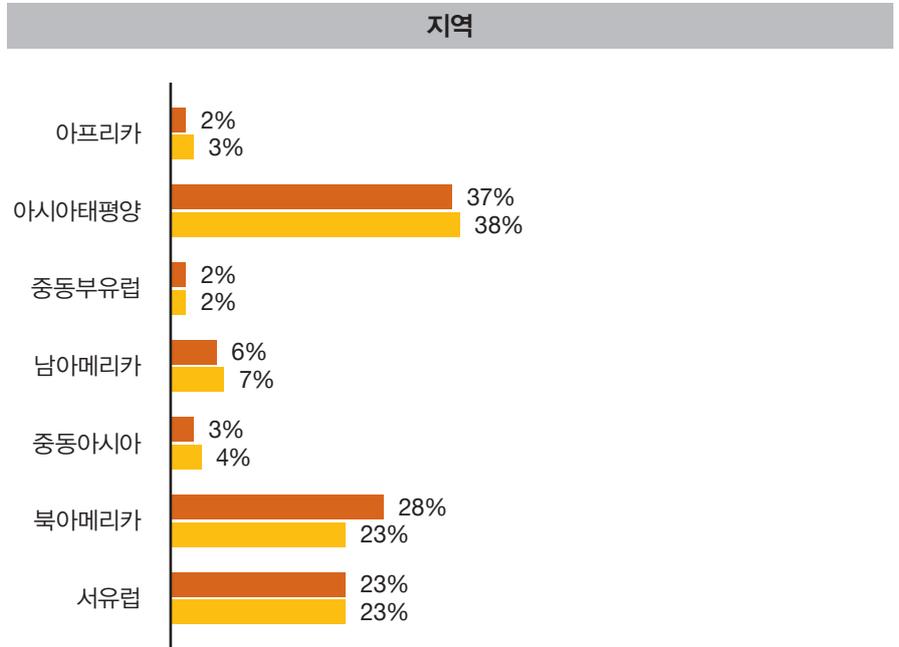
1 참여자 정보

참여 국가: 105개 국

응답 CEO: 4,702명

Notes about interpreting ch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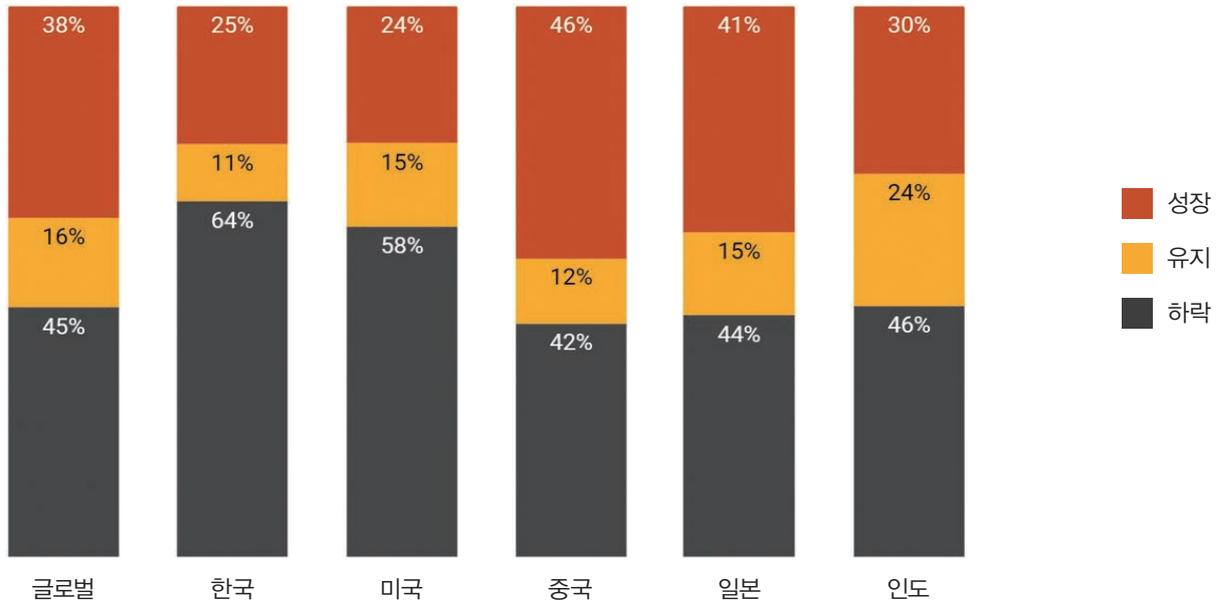
- 비교 분석 대상: 글로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 보고서 내 막대형 차트, 누적 막대형 차트의 모든 수치는 백분율 반올림과 '기타', '해당 없음', '모름' 응답의 표시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산 값이 100%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는 최종 글로벌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 글로벌, 국가별 및 데이터 매출 데이터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 및 산업 데이터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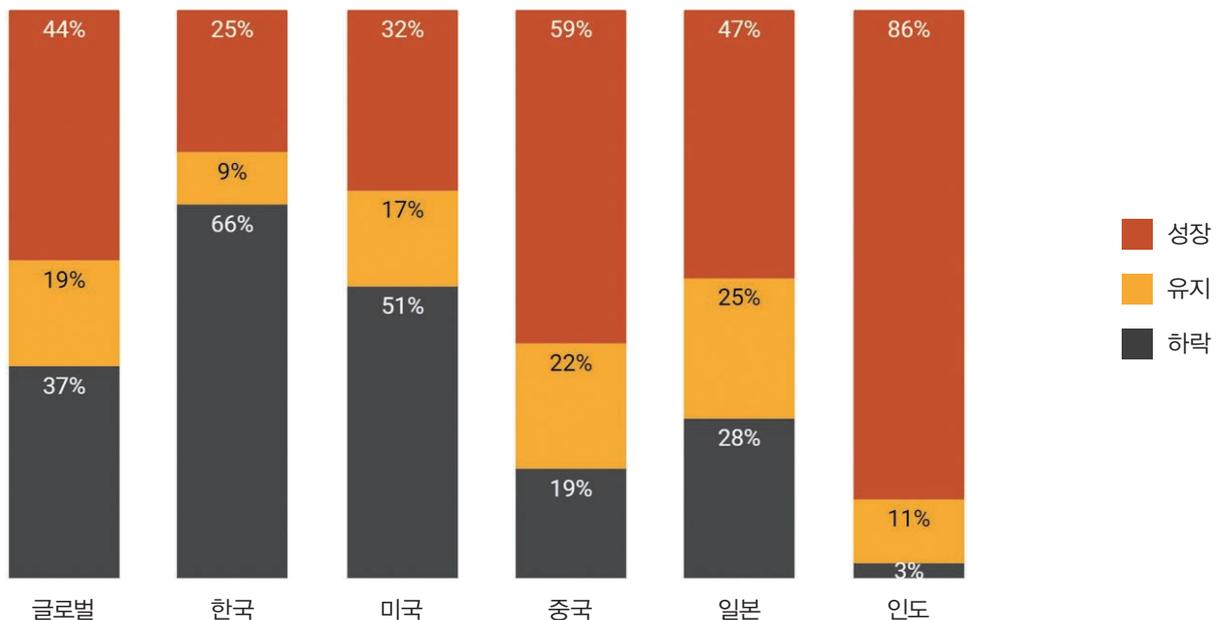
2023 2024

2 성장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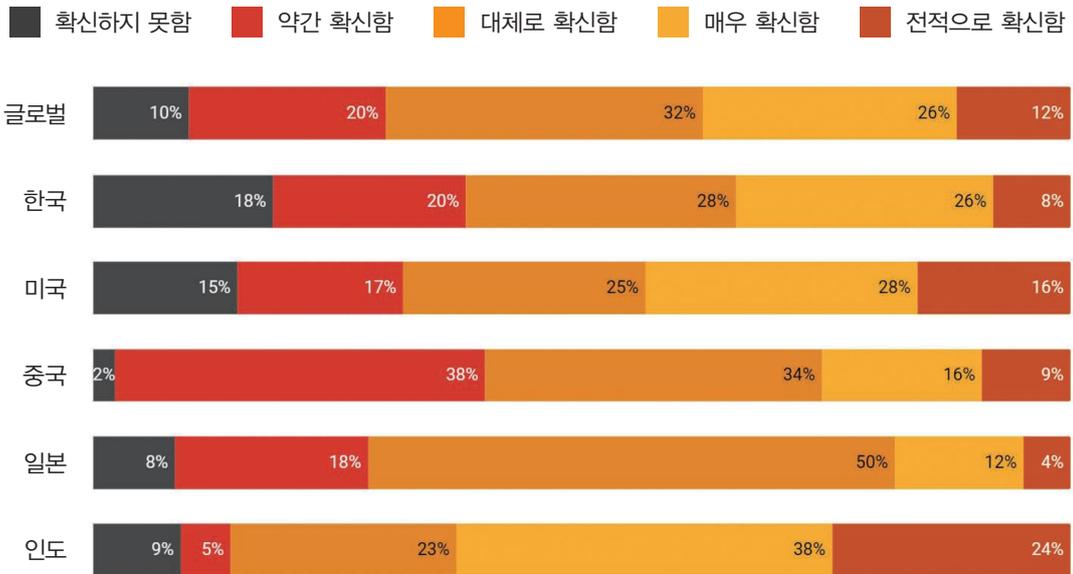
Q. 귀하는 향후 1년 간 세계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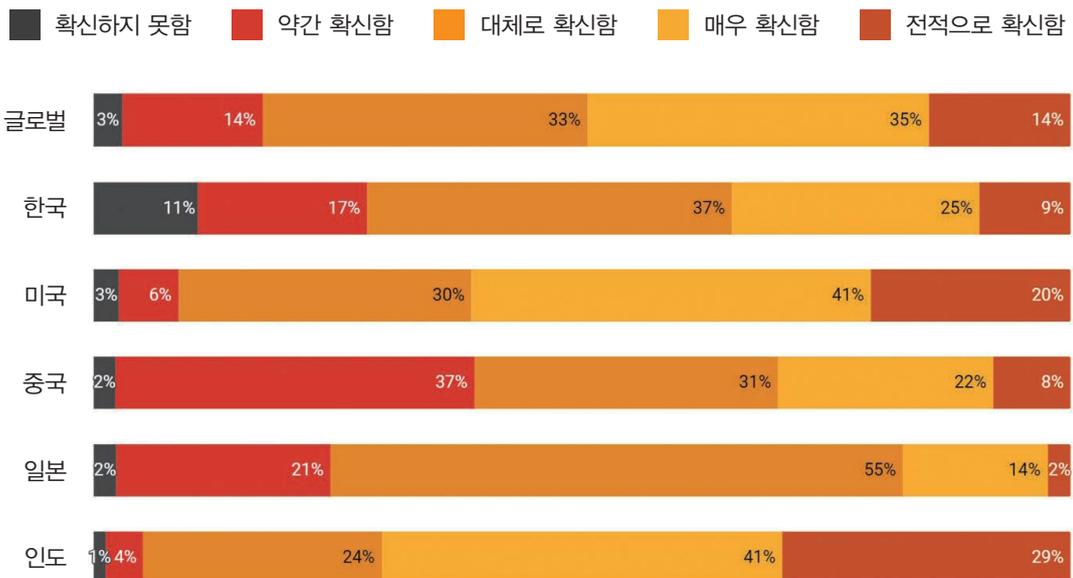
Q. 귀하는 향후 1년 간 귀하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 귀하는 향후 1년 간 회사의 매출 성장 전망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Q. 귀하는 향후 3년 간 회사의 매출 성장 전망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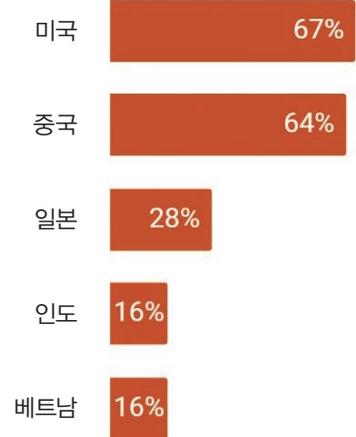


Q. 현재 거주 중인 국가를 제외하고, 향후 1년 간 귀하의 회사의 매출 성장 전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최대 3개 응답)

글로벌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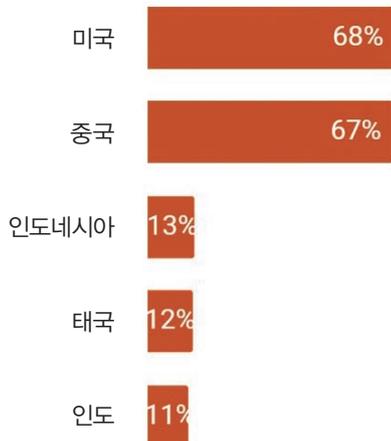
미국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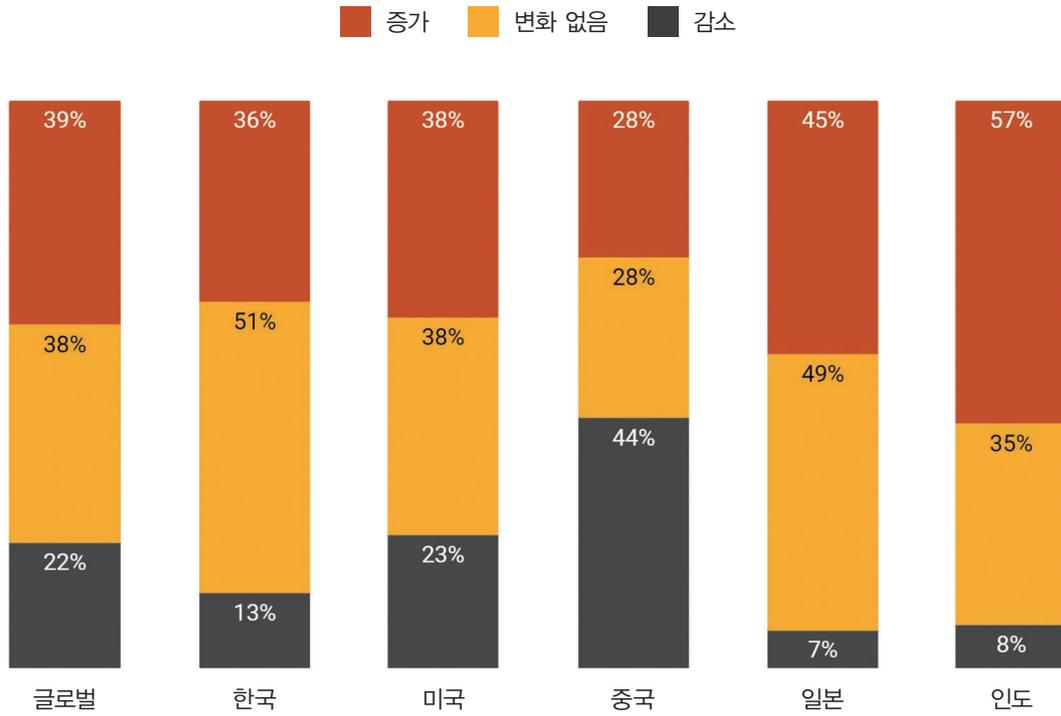
일본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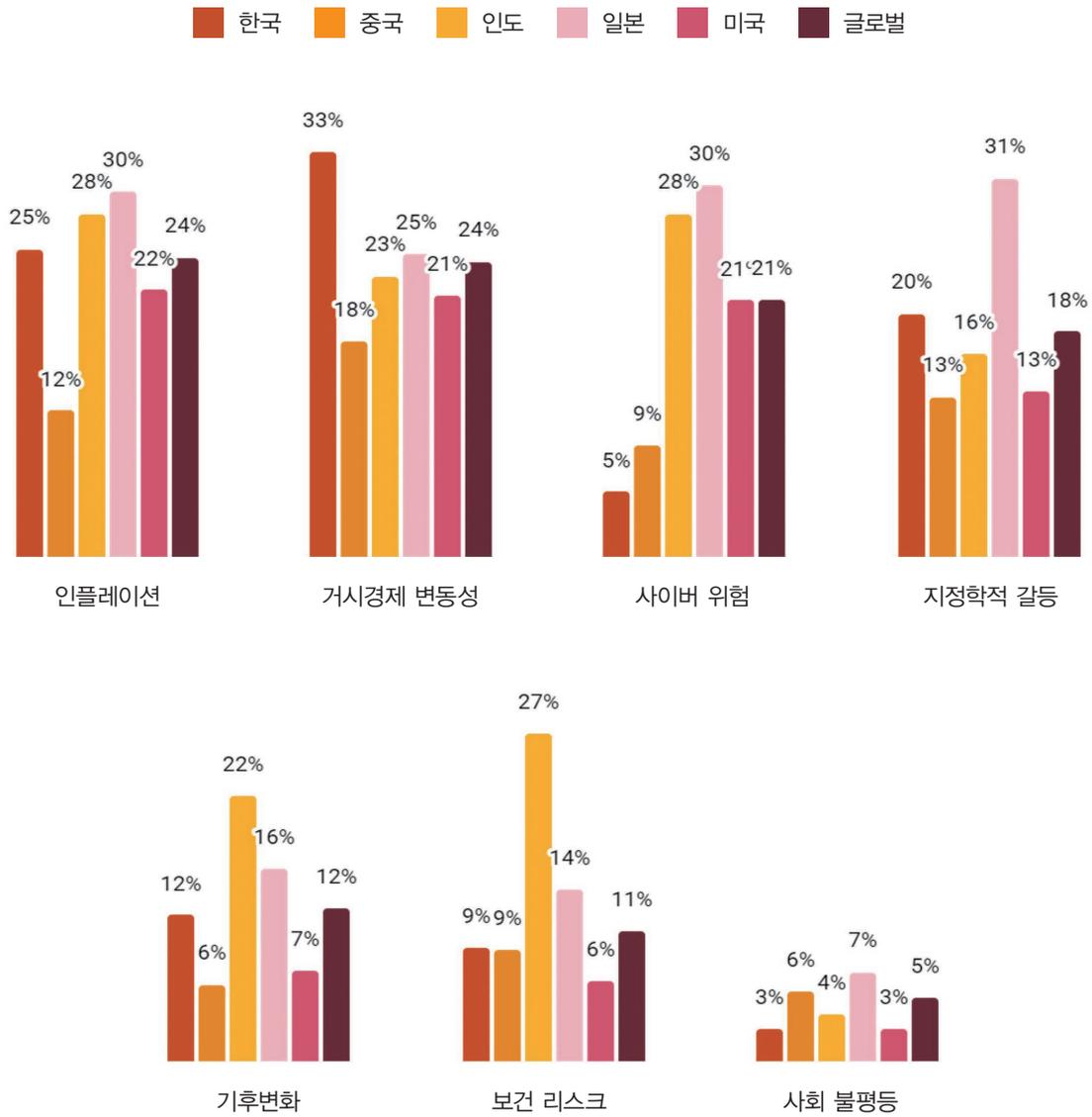


Q. 귀하의 회사는 향후 1년 간 인력이 어느 정도 감소 또는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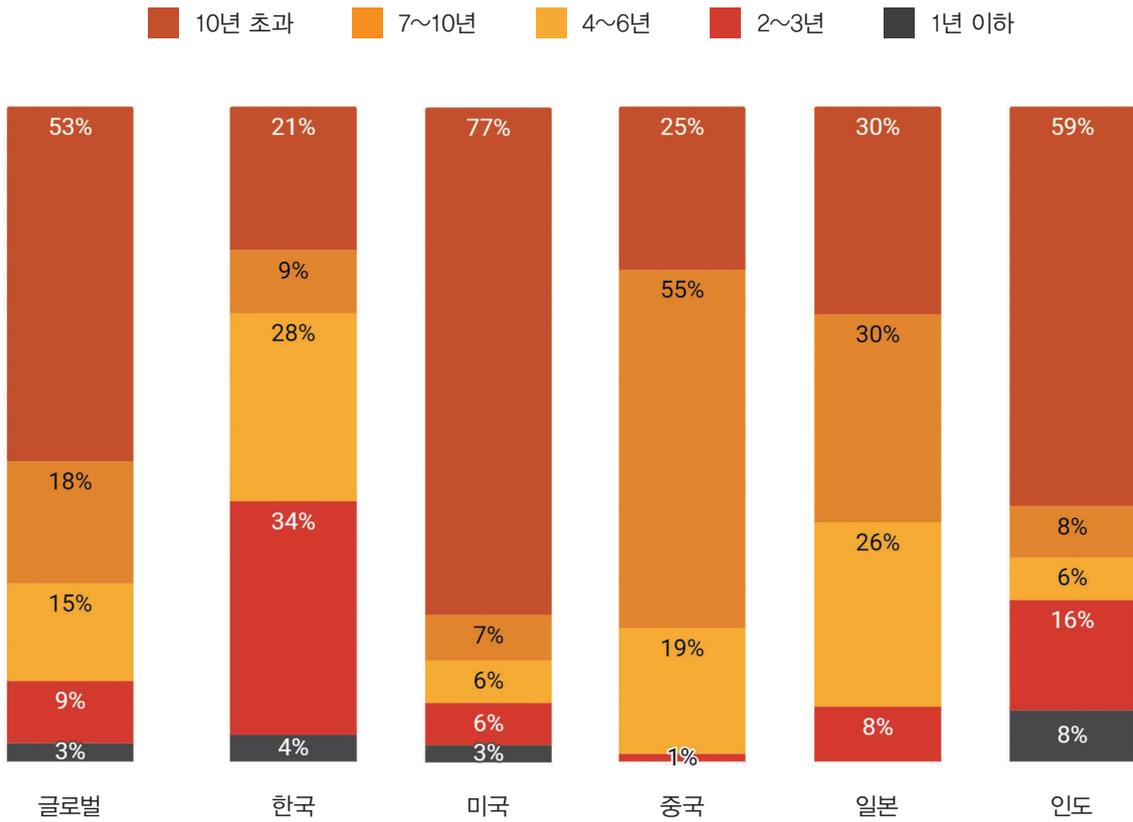
3 성장의 방해 요인

Q. 귀하의 회사는 향후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핵심적 위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노출됨' 및 '크게 노출됨'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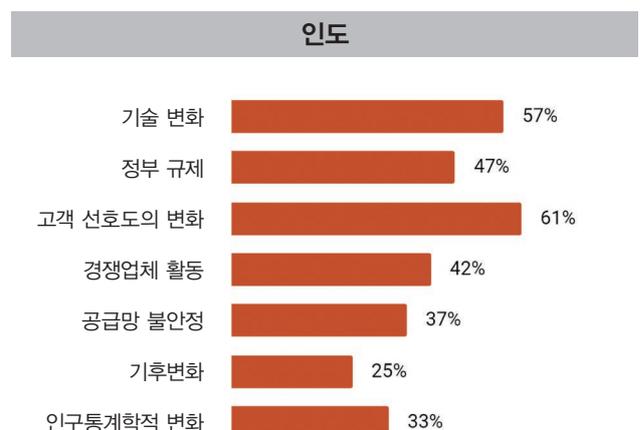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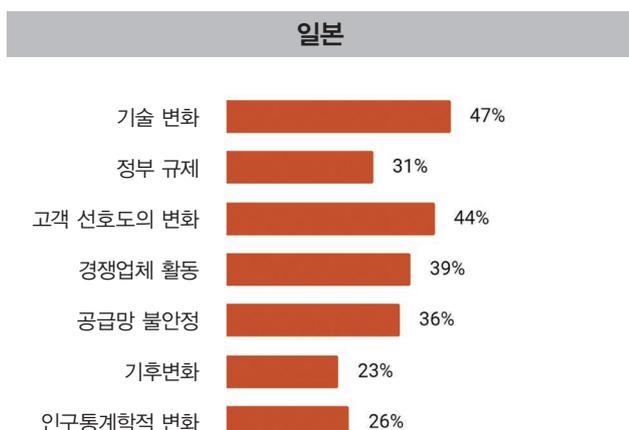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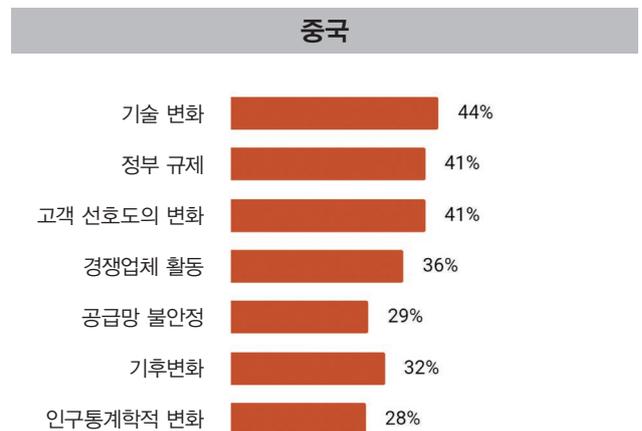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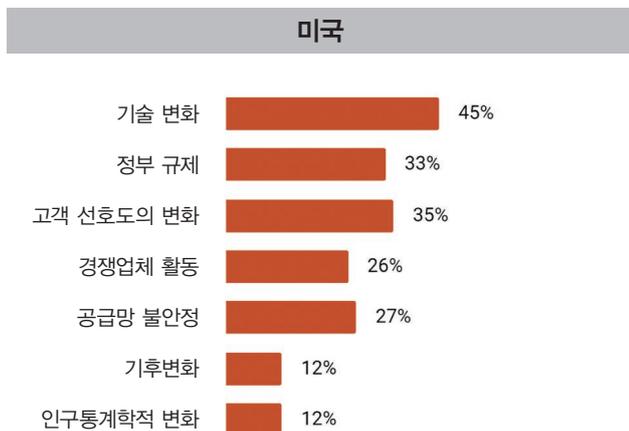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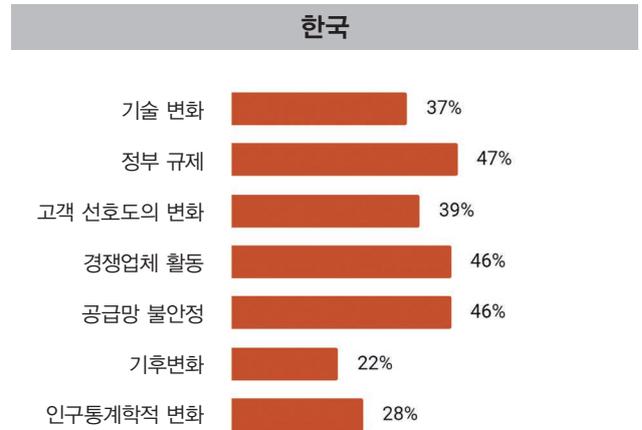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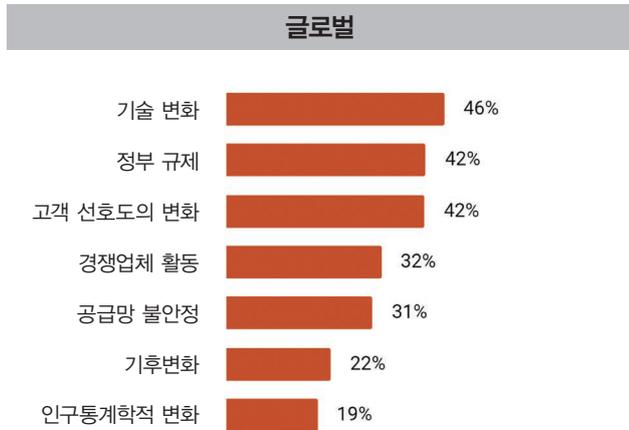


4 혁신의 방향

Q. 귀하의 회사가 현재의 추세로 계속 운영된다면,사업의 수익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다음 각 항목들은 지난 5년 간 귀하 회사의 가치 창출, 전달, 확보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표시]



Q. 다음 각 항목들은 향후 3년 간 귀하 회사의 가치 창출, 전달, 확보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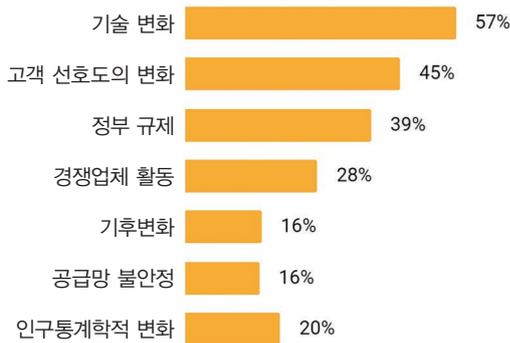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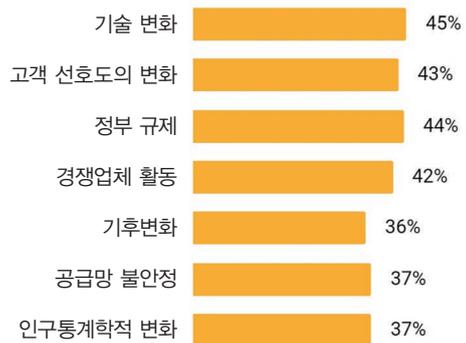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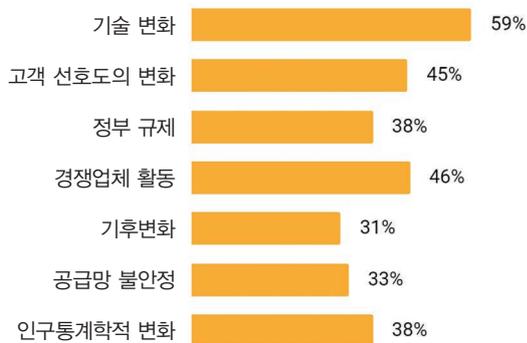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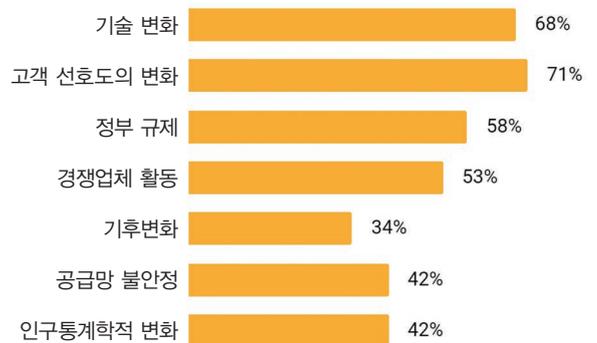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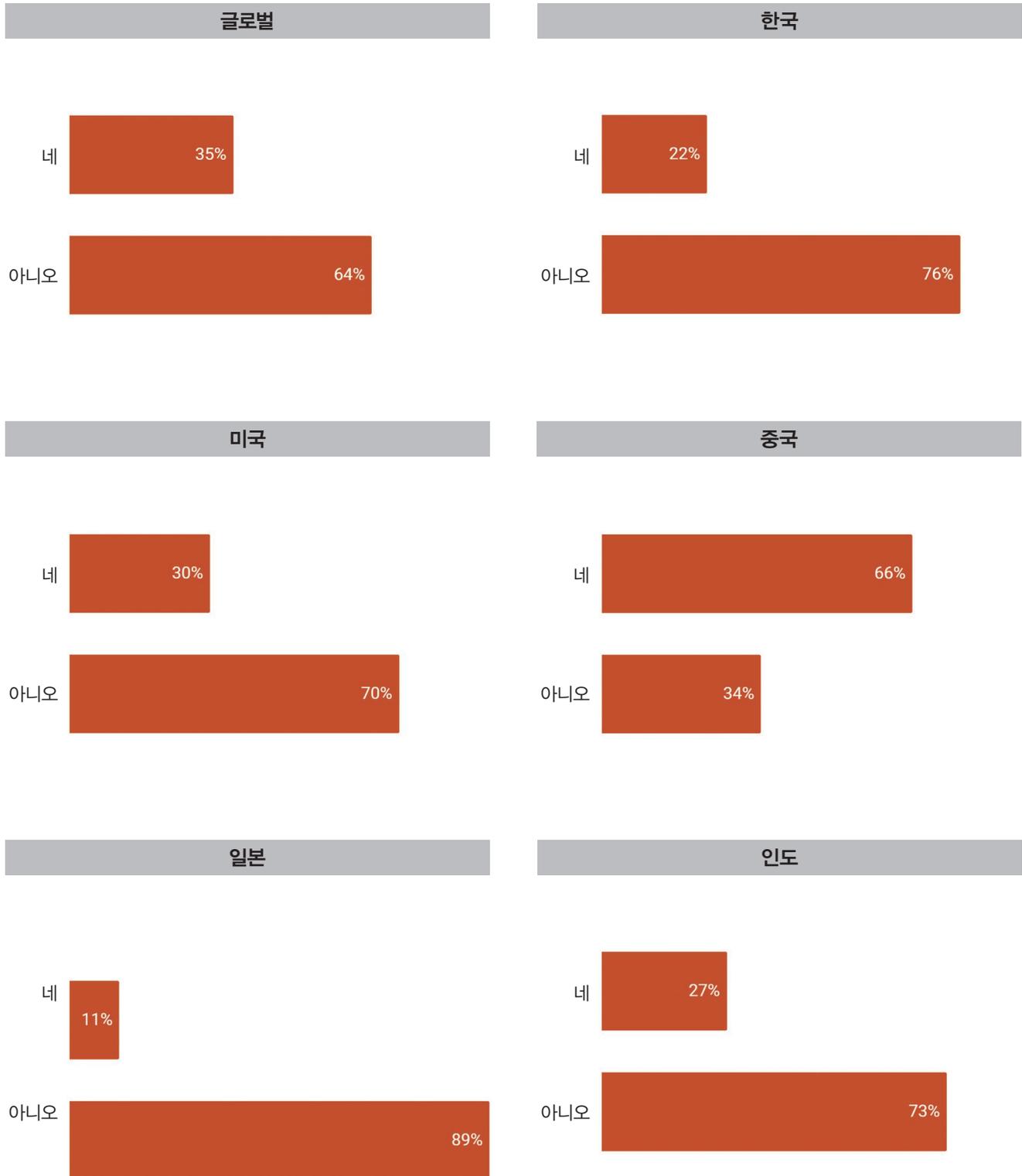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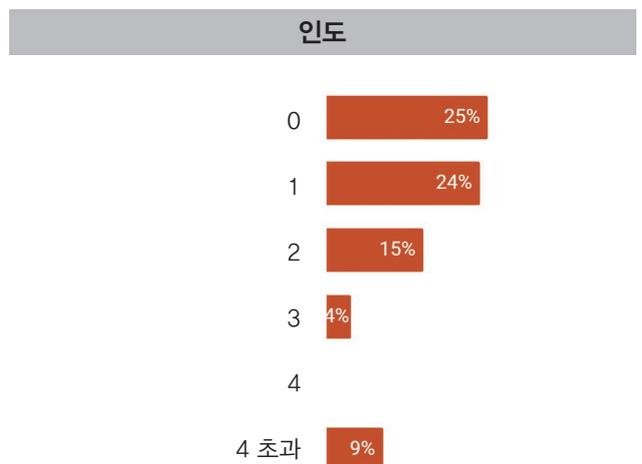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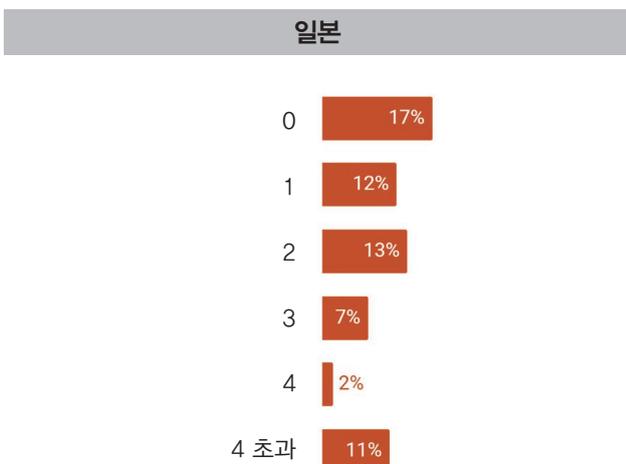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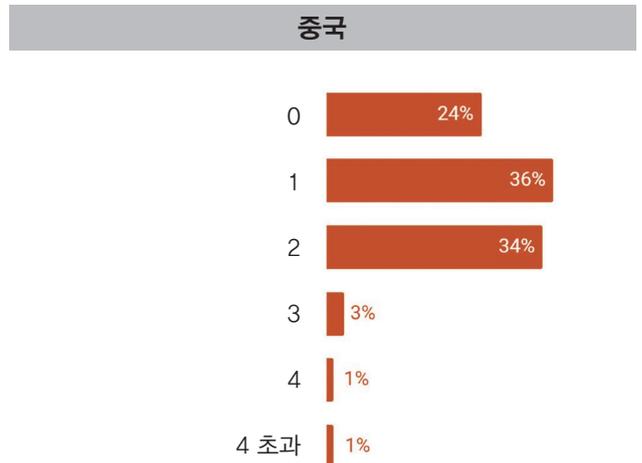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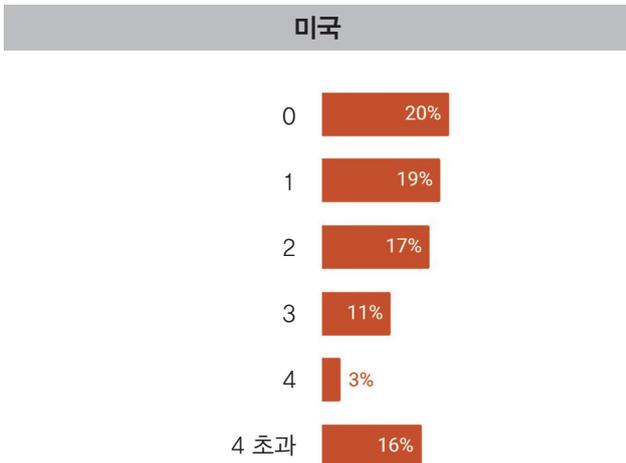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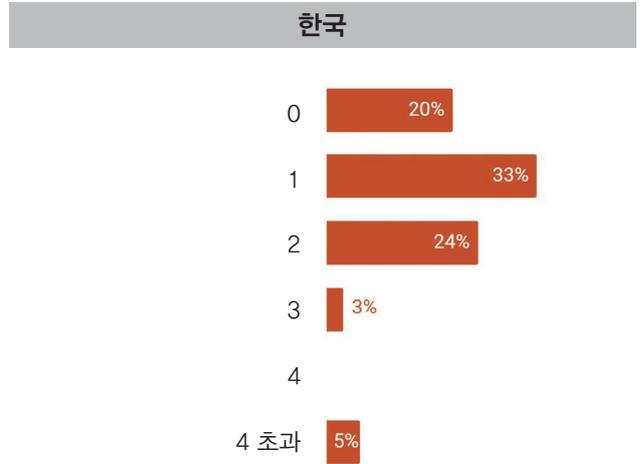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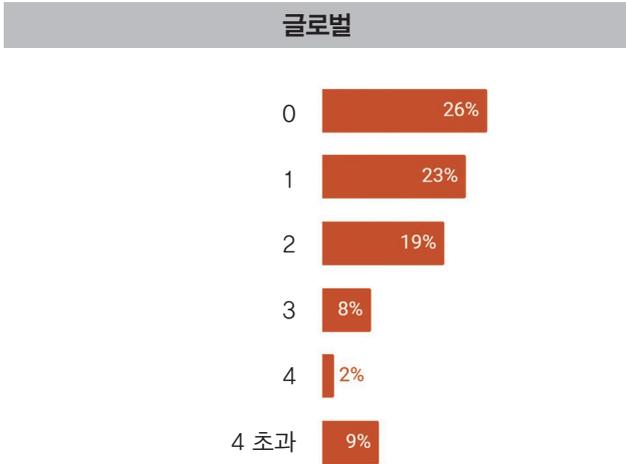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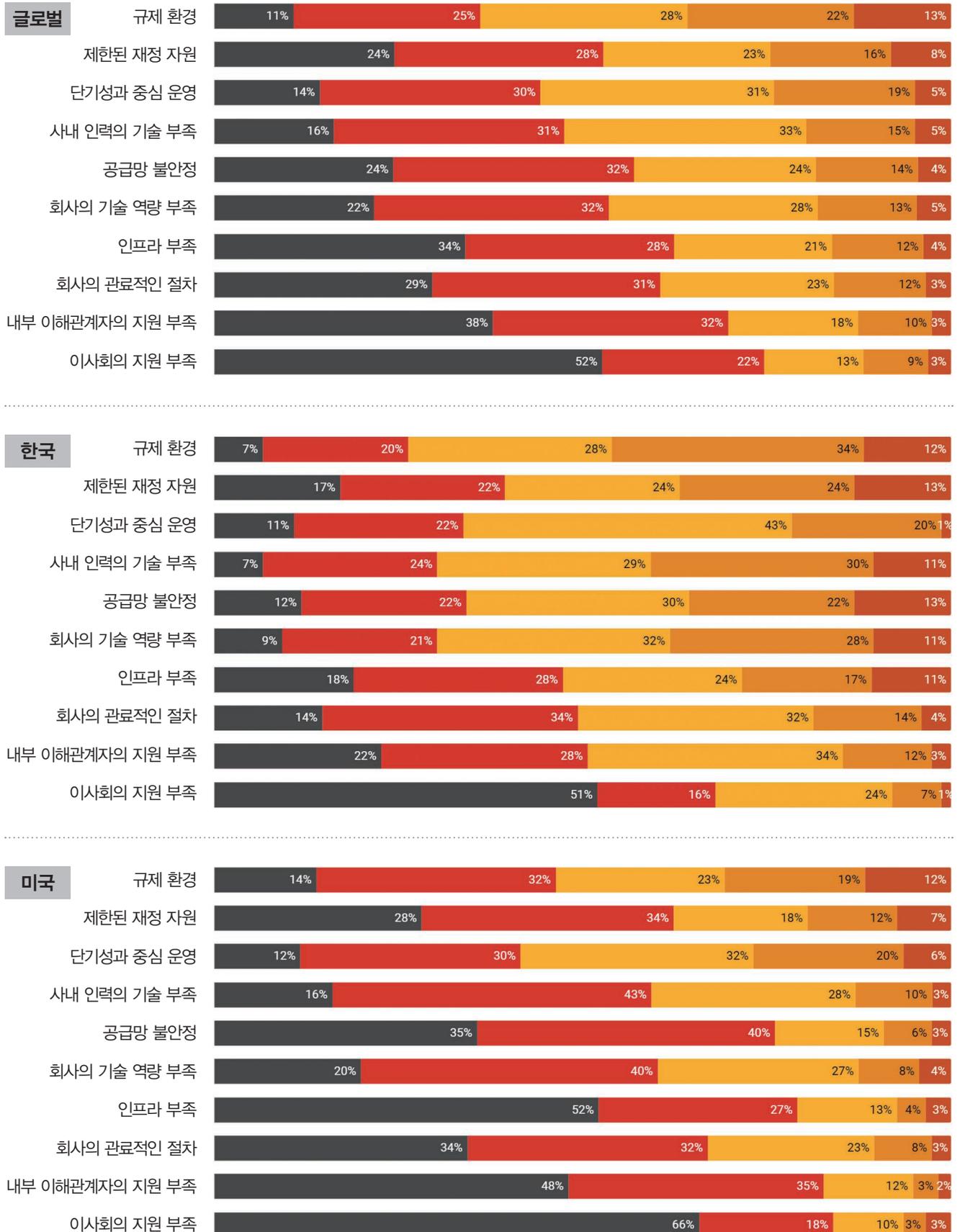
Q. 귀하의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대규모 인수(자산의 10% 이상)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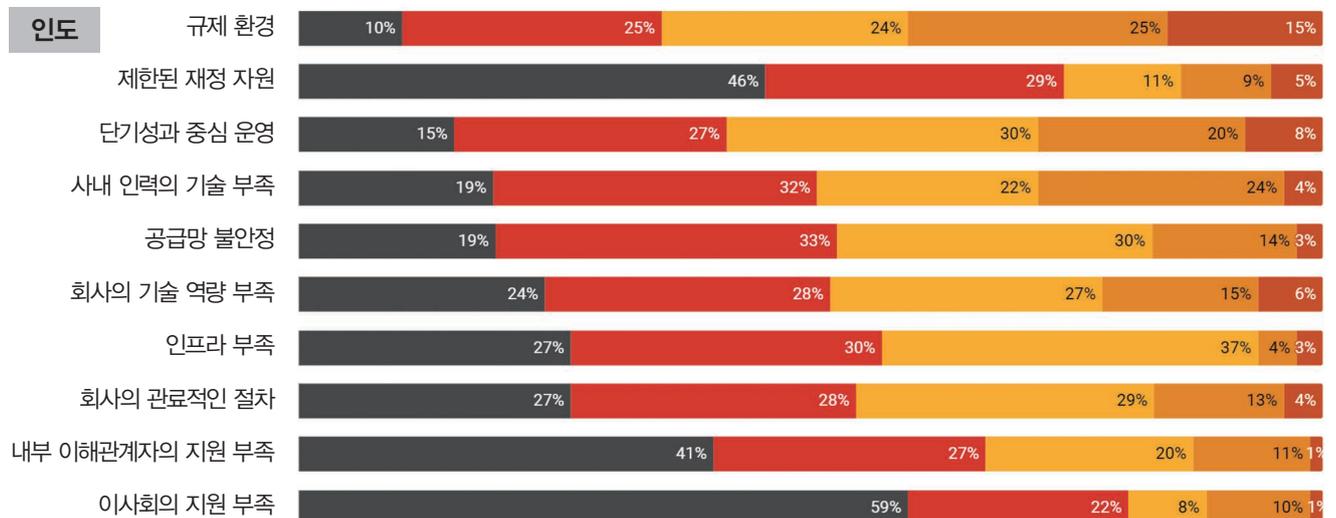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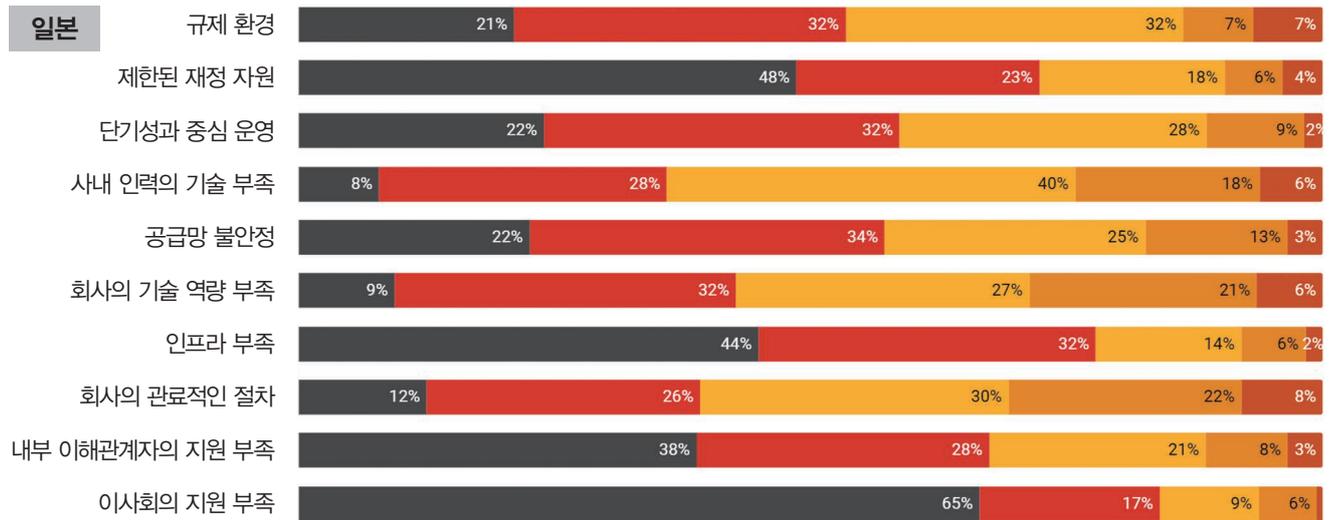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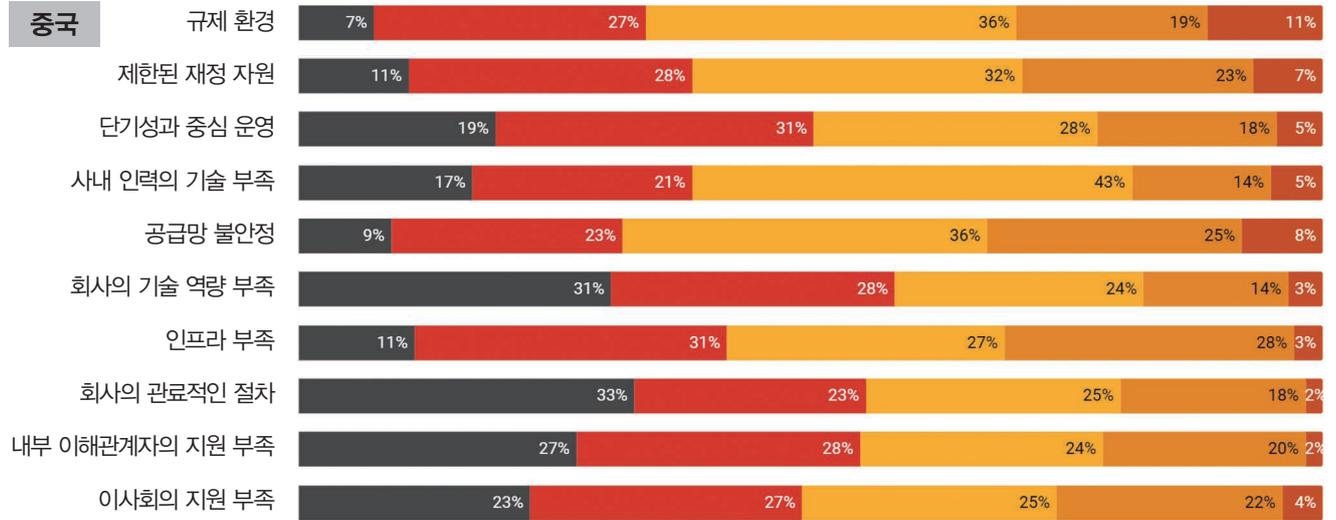
Q. 귀하의 회사는 향후 3년 동안 몇 건의 인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Q. 귀하의 회사가 가치를 창출, 전달, 확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다음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표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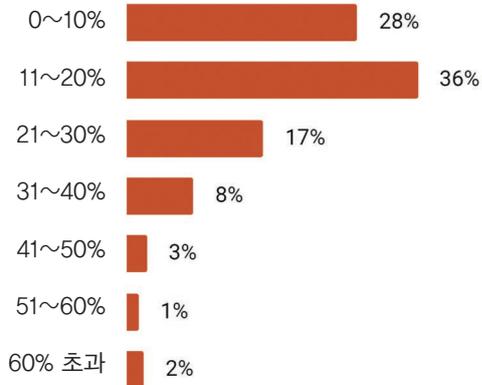


전혀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반적인 범위에서
 큰 범위에서
 막대한 범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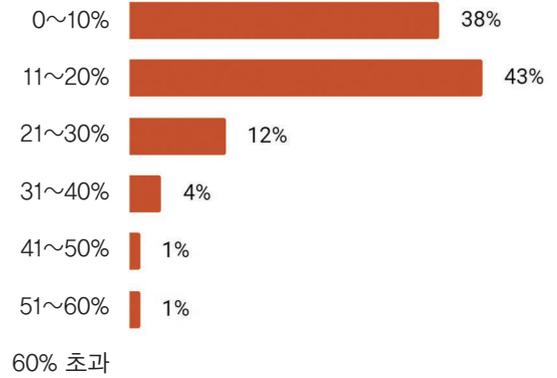


Q. 귀하 회사의 경영진은 해마다 회사의 자원(재무 및 인력)을 어느 정도 비율로 재분배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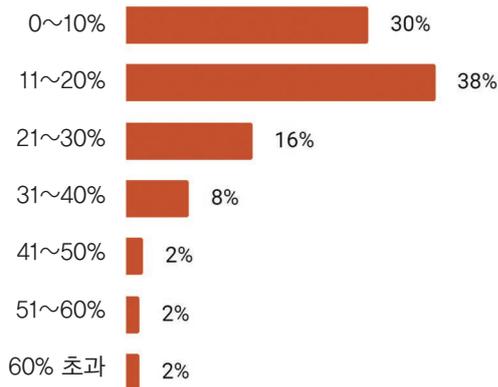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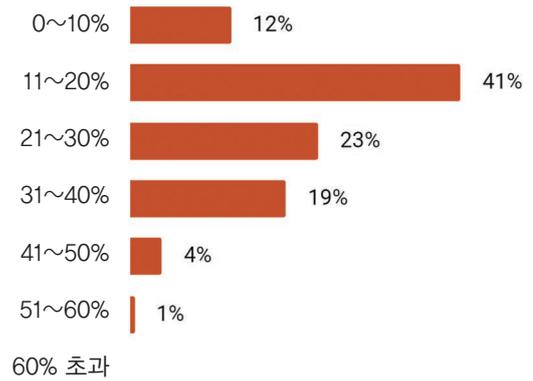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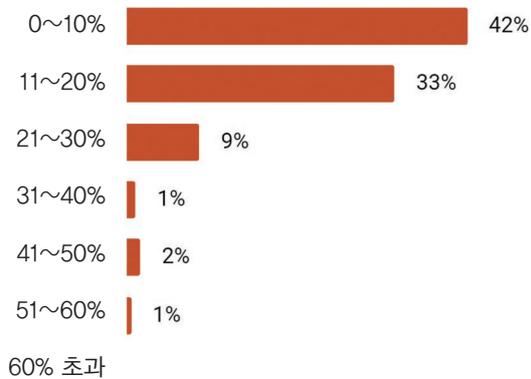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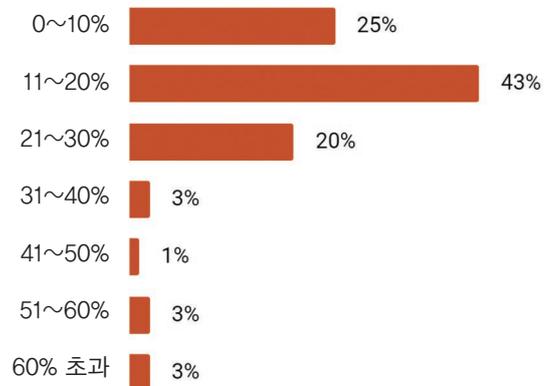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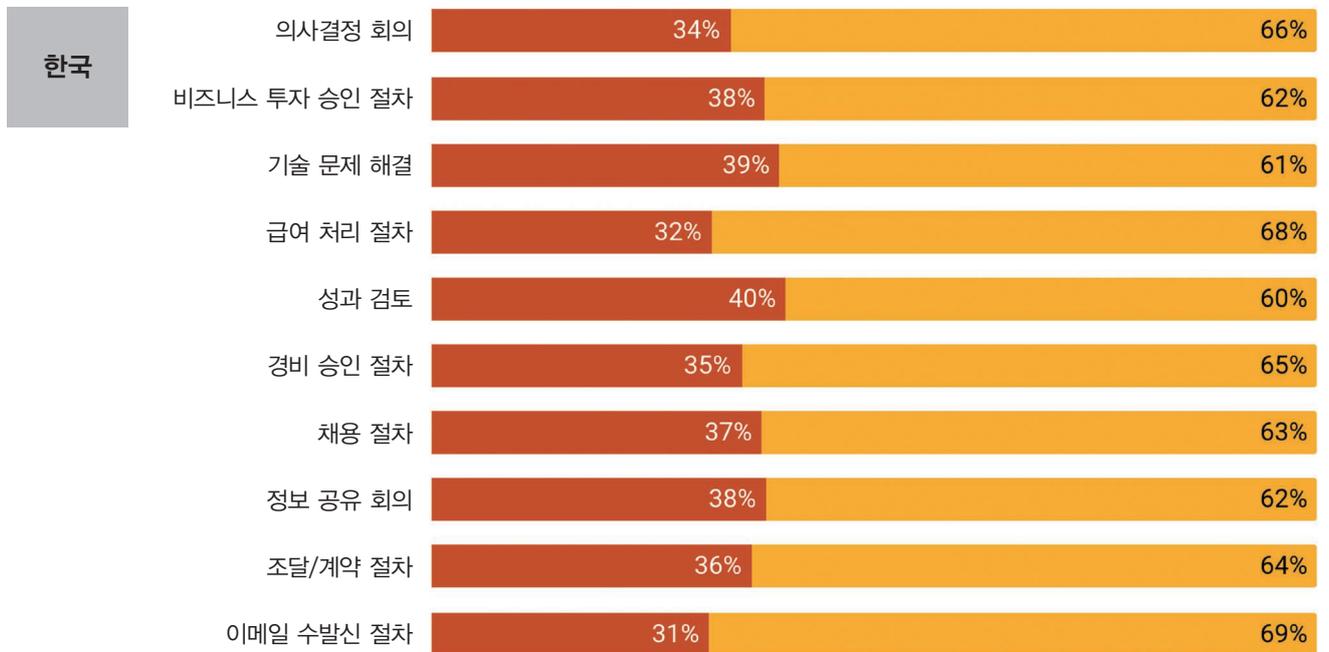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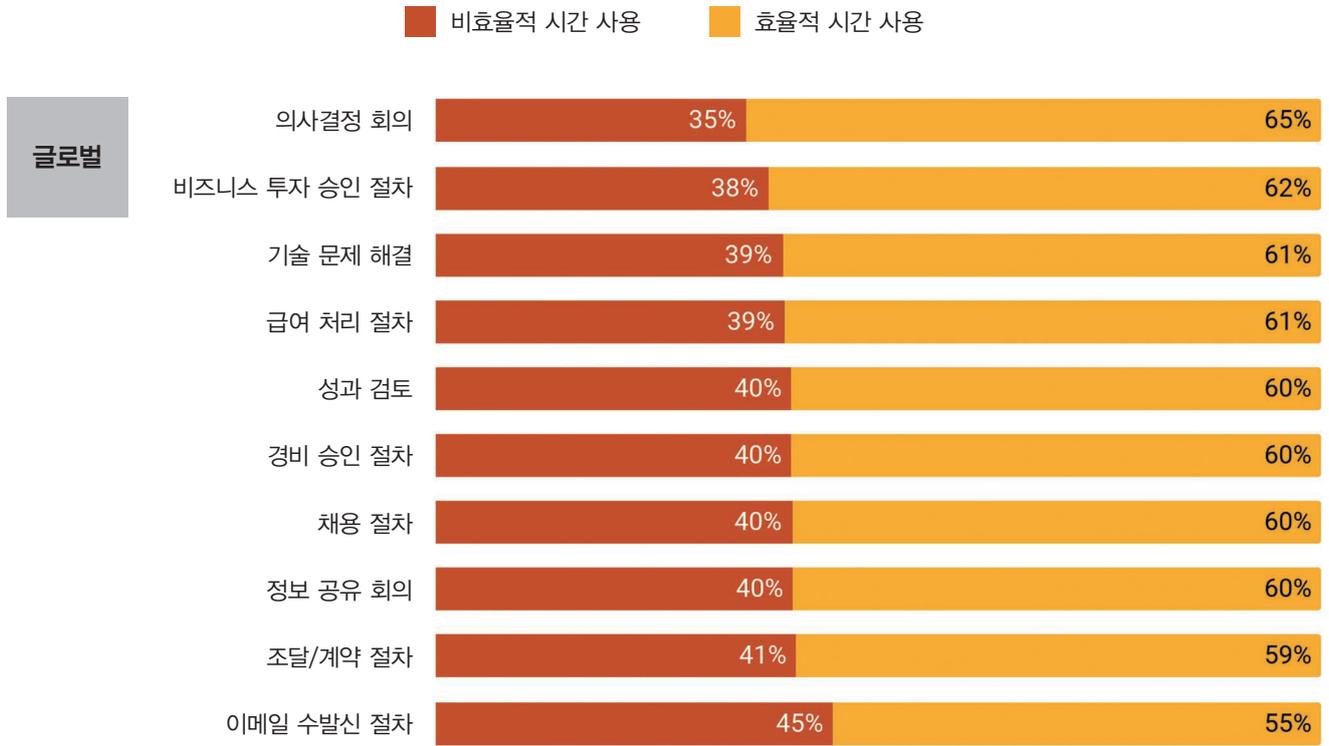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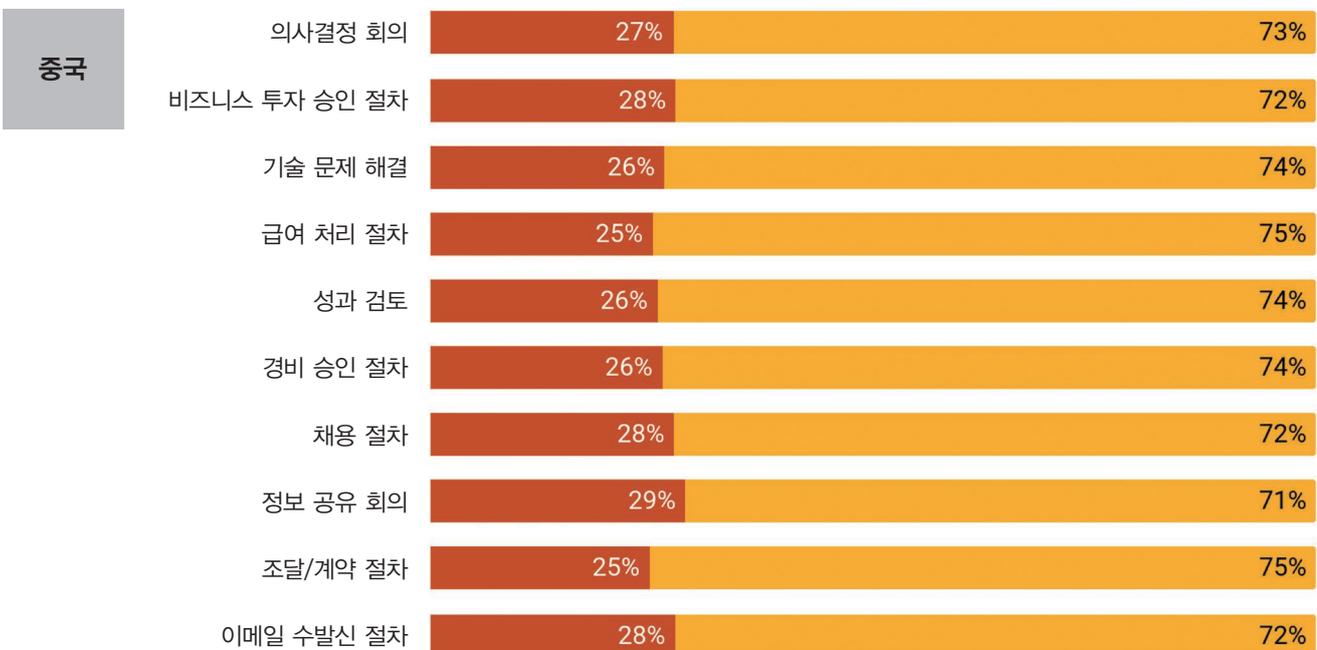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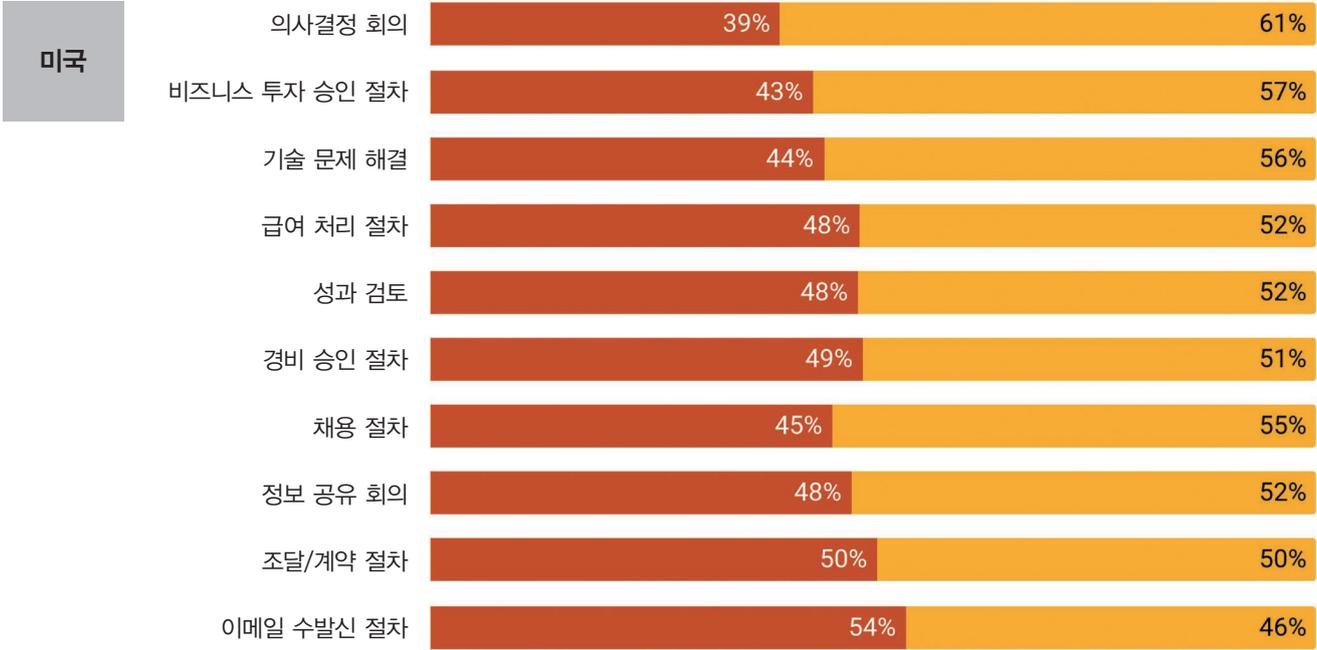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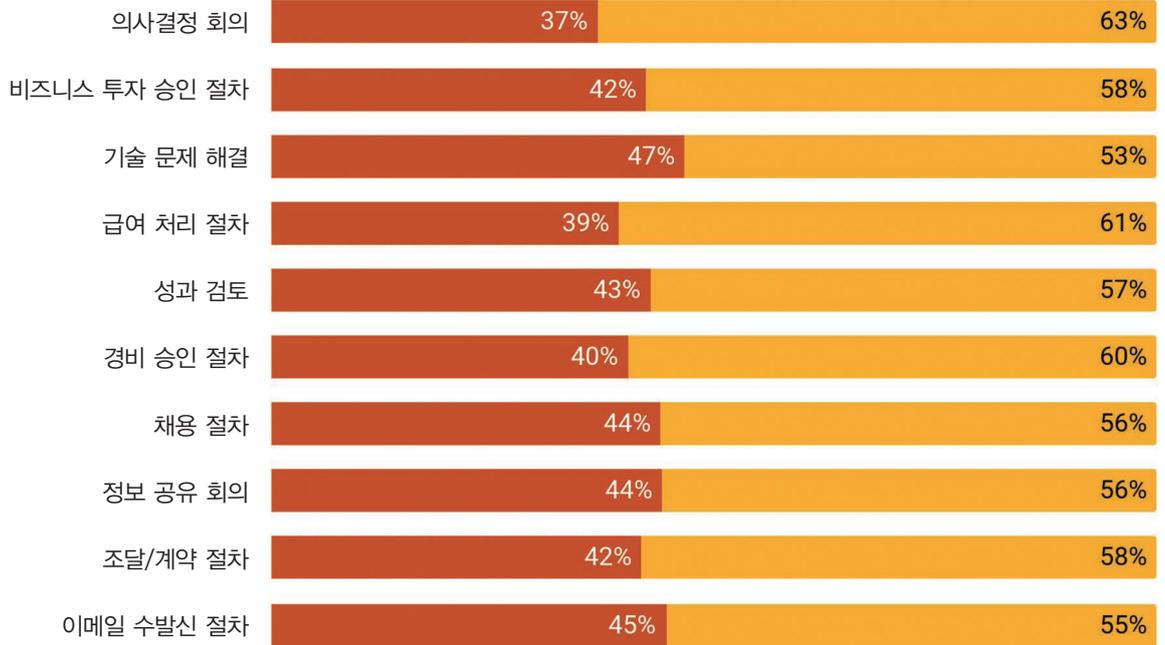
Q. 귀하 회사에서 다음 활동·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 중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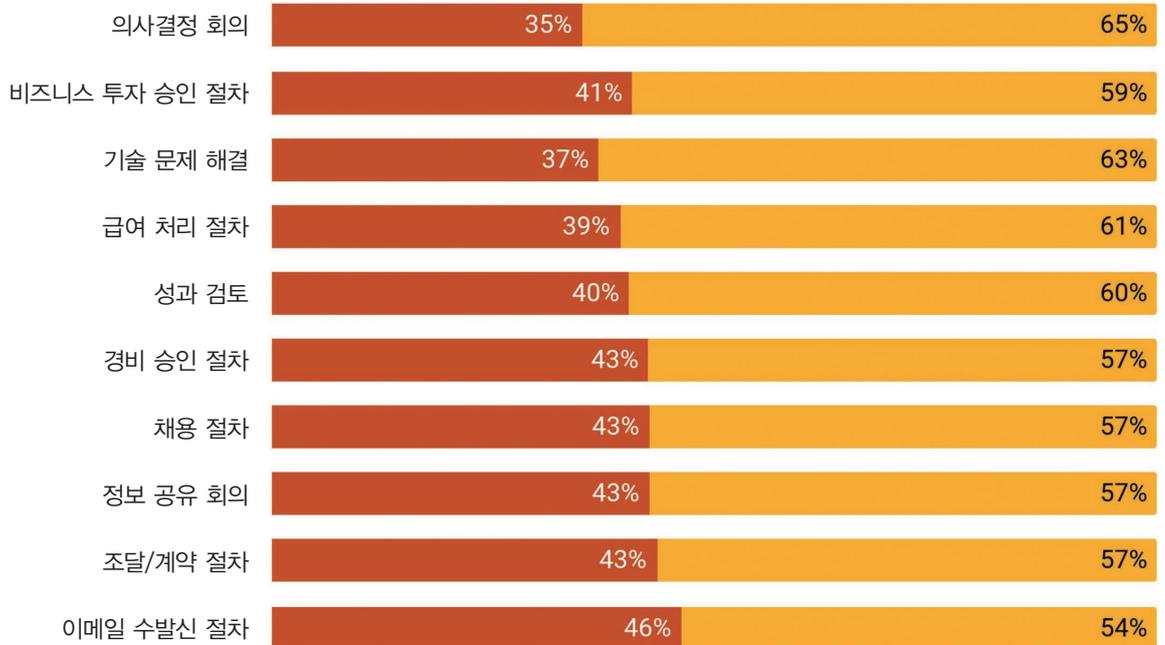
*Notes: question text amended for clarity
Base: All respondents who provided a valid response (excluding Don't know)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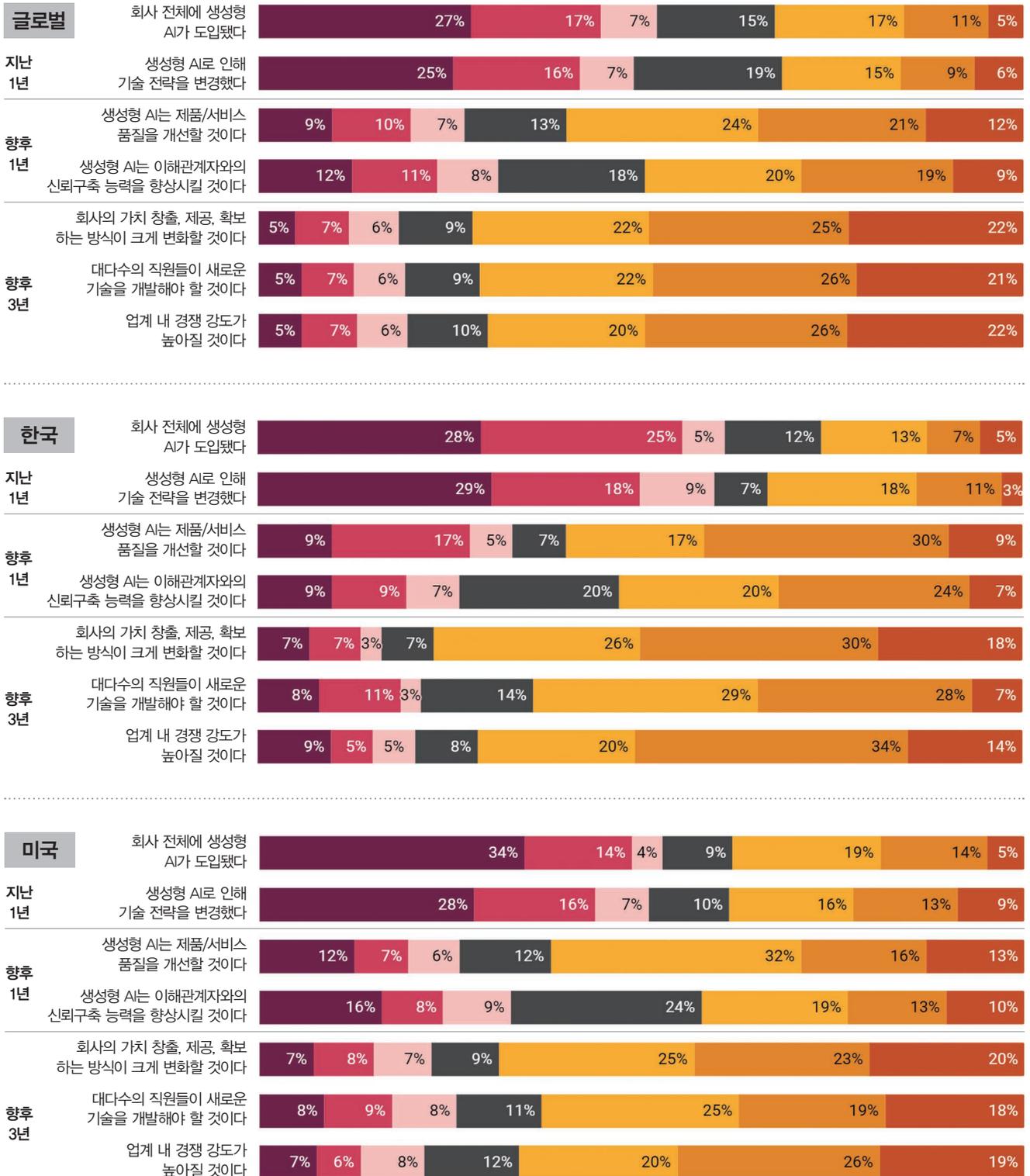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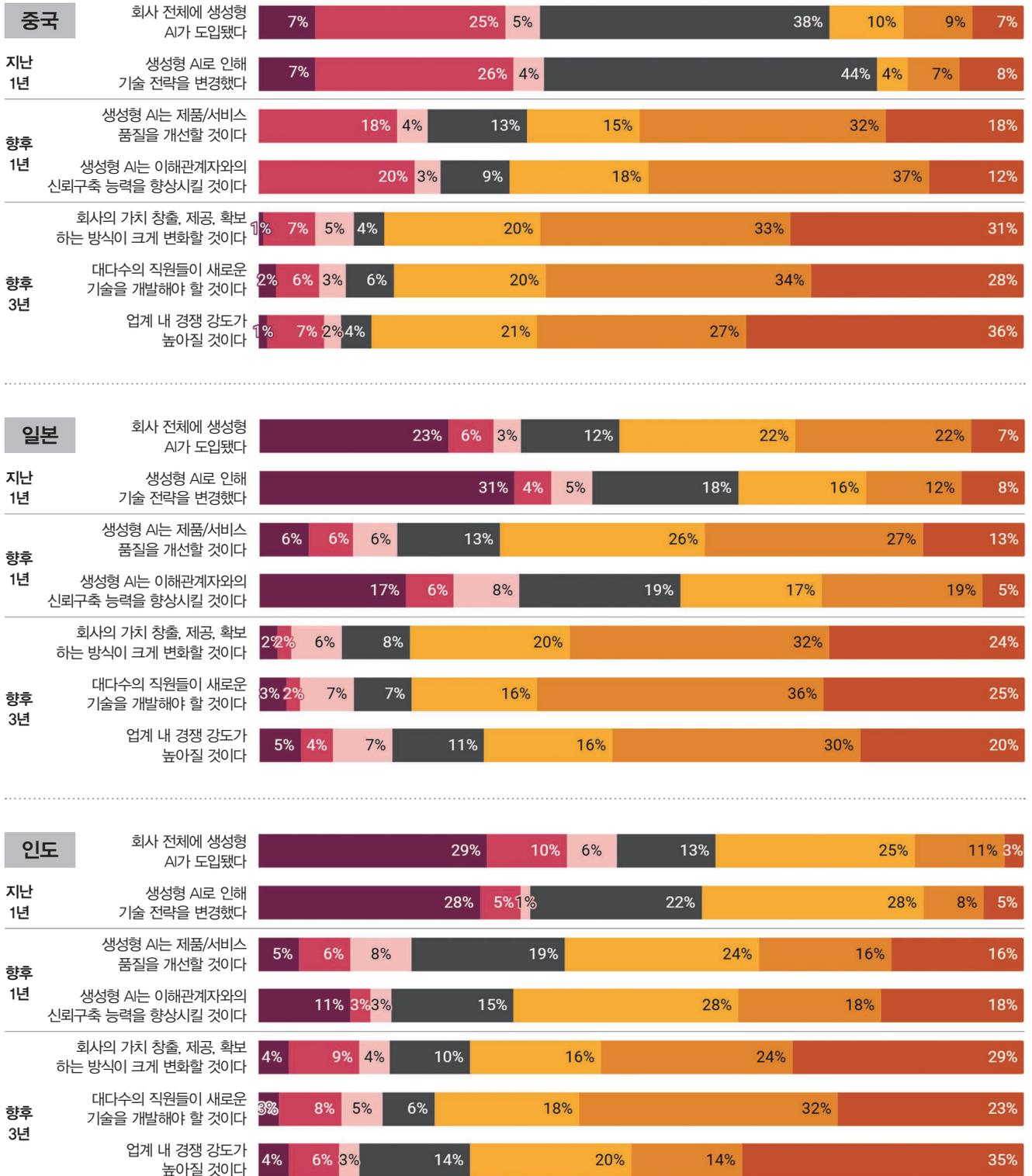
인도



5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

Q. 다음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Q. 생성형 AI가 향후 1년 내에 귀하의 회사에서 다음 항목들을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증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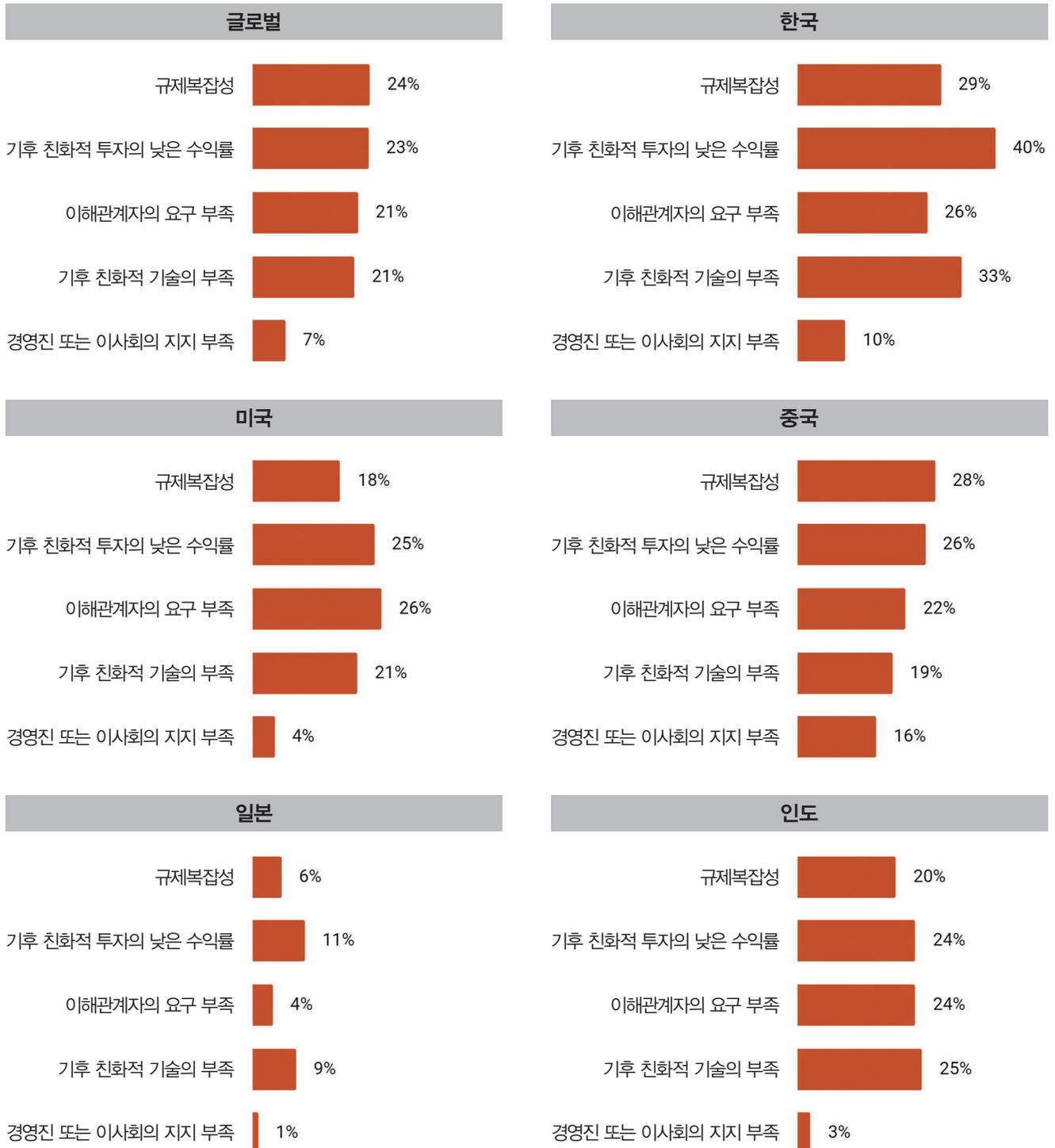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나의 업무 효율성	수익성	매출	인력
글로벌	64%	59%	46%	41%	13%
한국	70%	62%	42%	41%	13%
미국	68%	50%	44%	35%	10%
중국	68%	77%	59%	60%	18%
일본	46%	40%	34%	23%	15%
인도	71%	70%	46%	48%	13%

Q. 생성형 AI가 향후 1년 내에 귀하의 회사에서 다음 요인들을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동의함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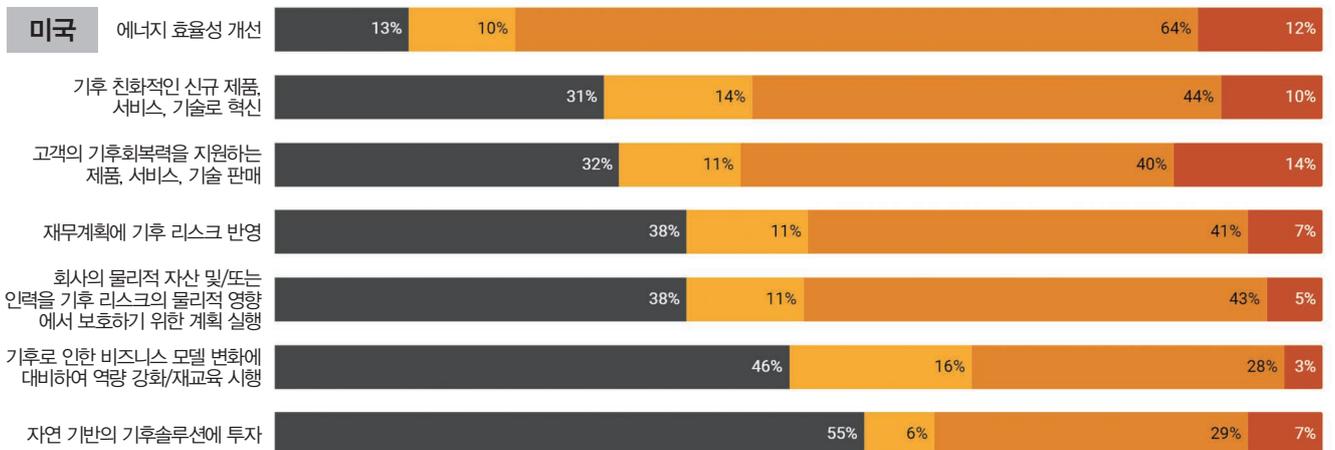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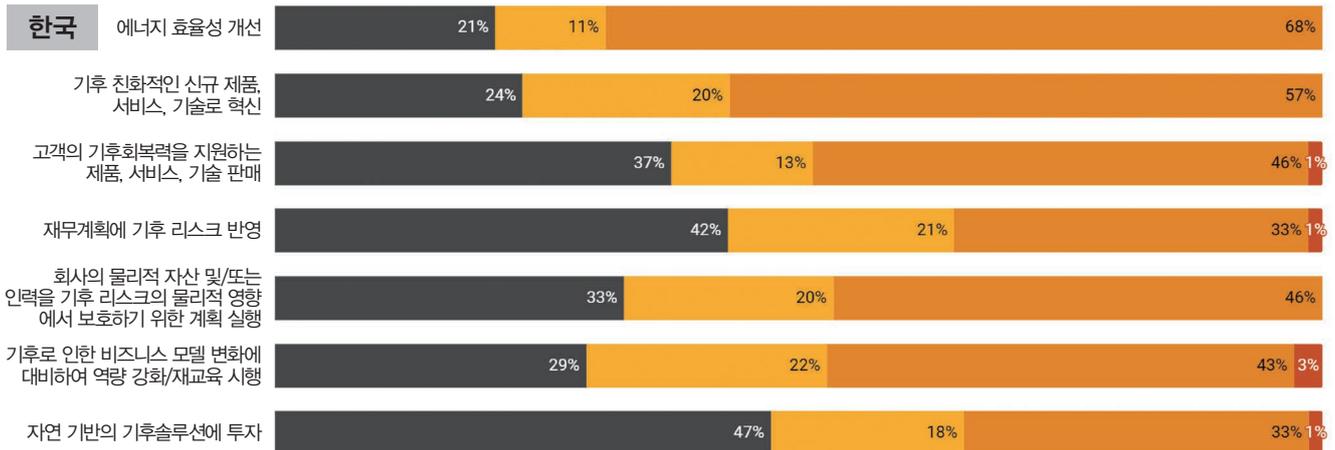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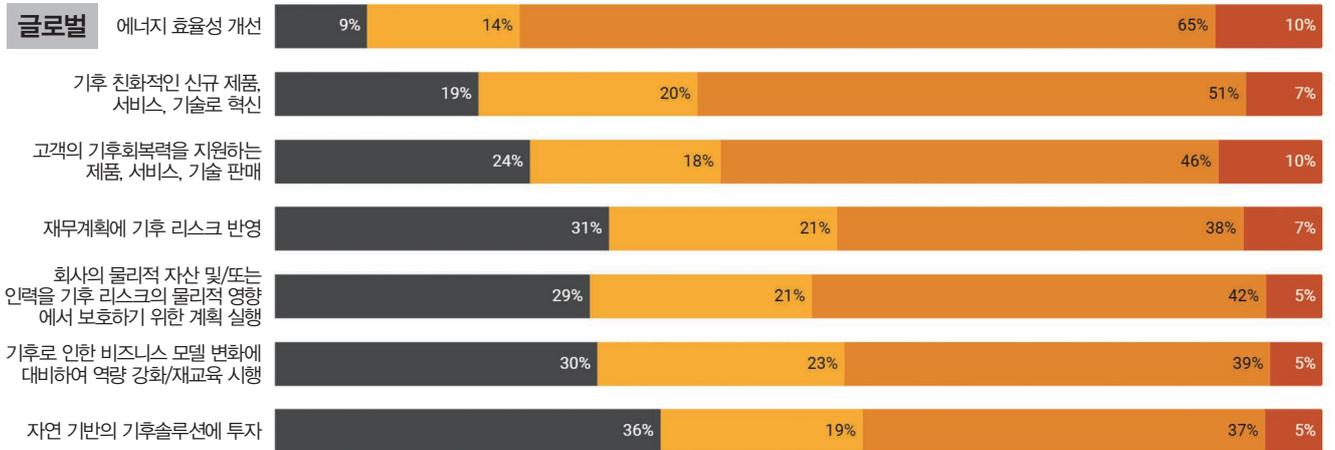
	사이버보안 리스크	거짓정보 확산	법적 책임 및 평판 리스크	특정 고객 또는 직원 집단에 대한 편견
글로벌	64%	52%	46%	34%
한국	72%	67%	57%	41%
미국	77%	63%	55%	33%
중국	26%	25%	22%	23%
일본	71%	70%	63%	39%
인도	71%	54%	53%	39%

6 기후변화 대응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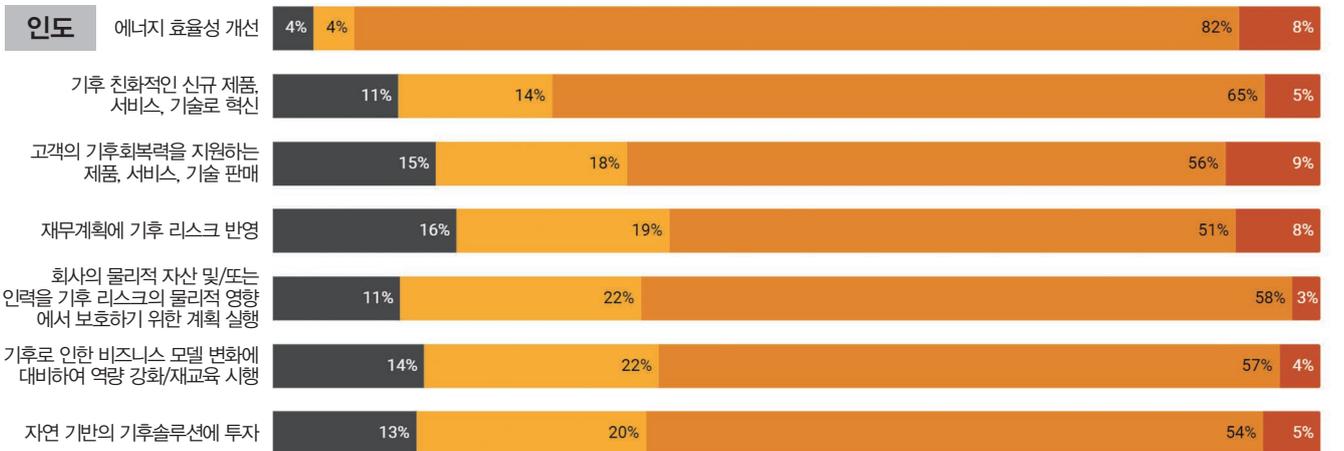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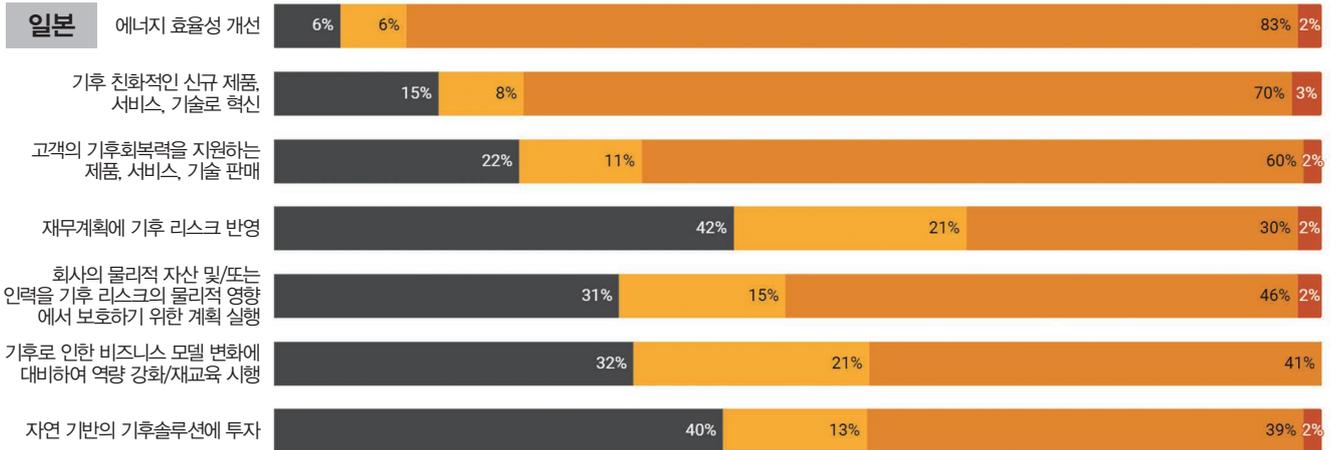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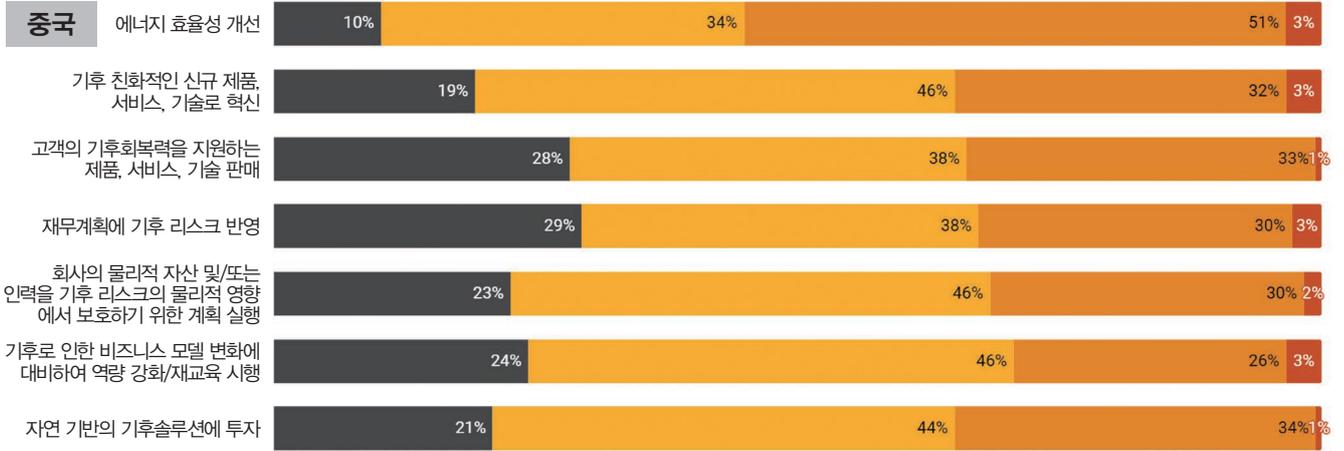
Q. 다음 요인 중 귀하의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탈탄소화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매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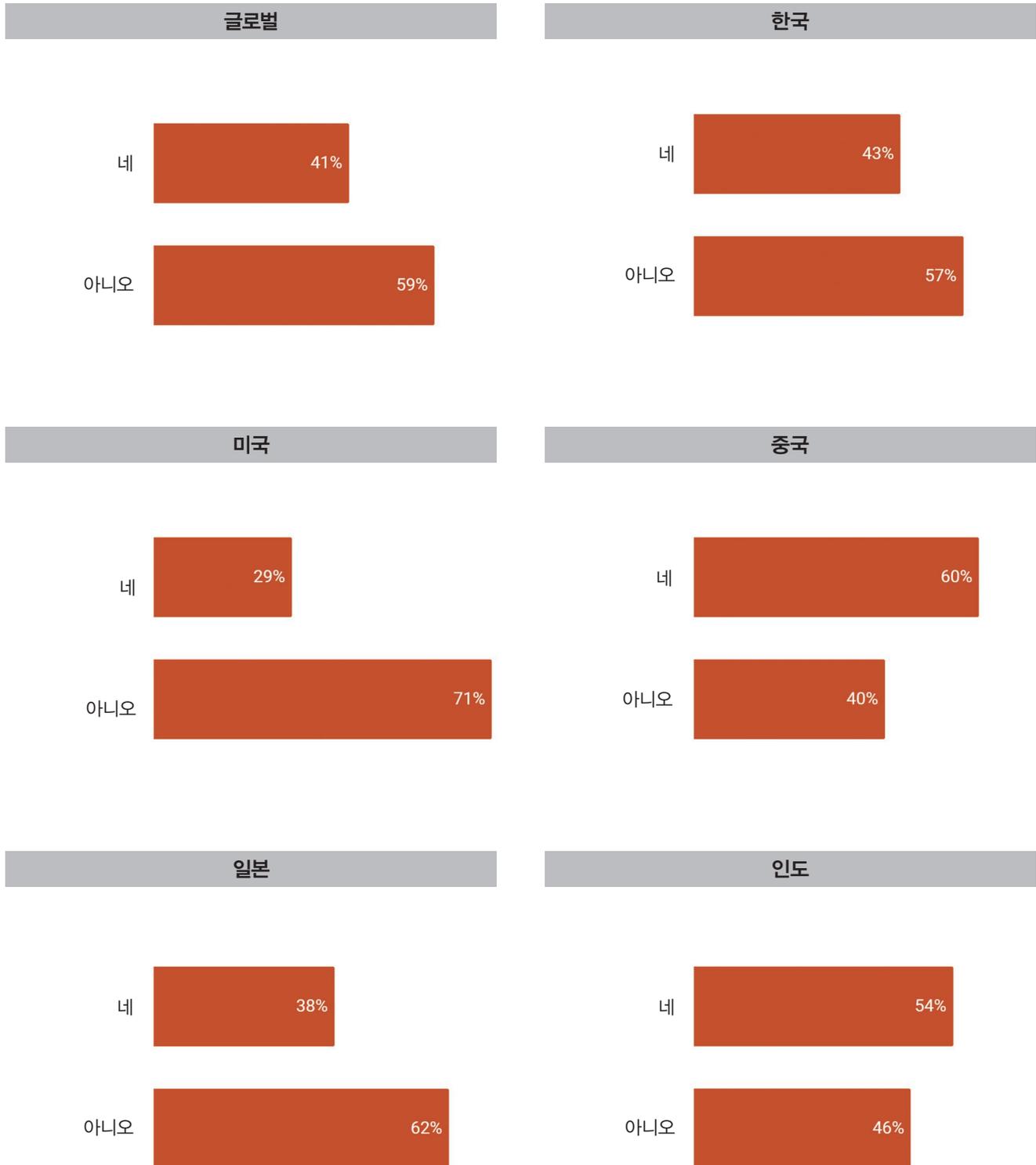
Q. 다음은 기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입니다. 각 전략에 대한 귀하 회사의 진행 단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탄소화
 운영 및 경영 전략에 적용
 운영 및 경영 전략의 전환
 투자 방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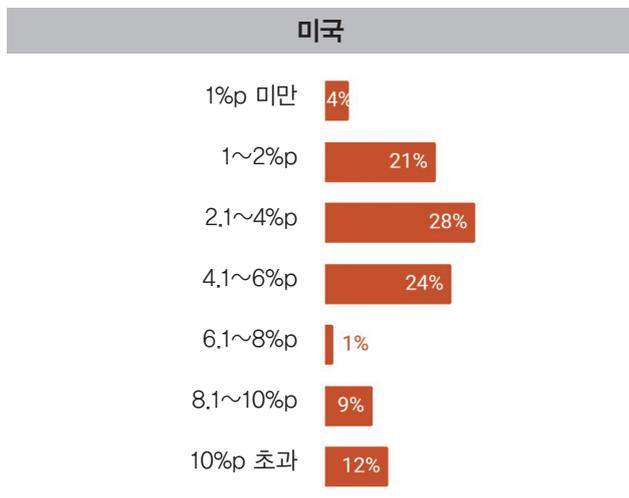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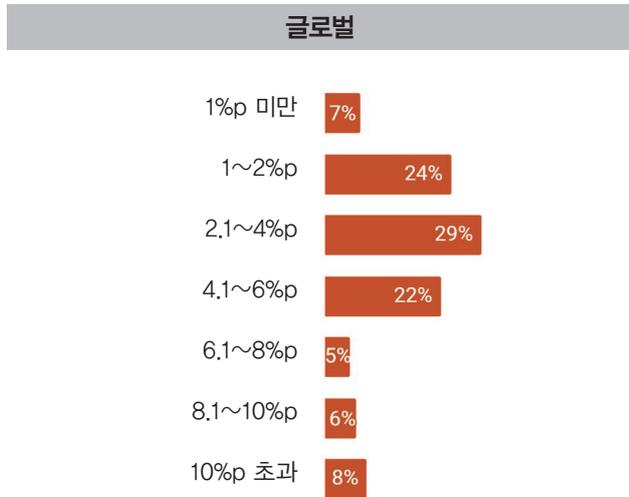


Q.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회사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평가할 때 다른 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까?



*Notes: e.g., transitioning to energy-efficient operations, developing greener products and services, implementing emission-reducing technologies)

Q. 기후 친화적 투자의 허용 가능한 수익률은 다른 투자에 비해 얼마나 낮았습니까?



Contacts

오기원

Assurance Leader

kee-won.oh@pwc.com

이종현

Tax Leader

alex.lee@pwc.com

박대준

Deals Leader

dae-joon.park@pwc.com

Technology (Hardware) Sector

Assurance

남상우 Partner

sang-woo.nam@pwc.com

Tax

정재국 Partner

jae-kook.jung@pwc.com

Tax

소주현 Partner

so.juhyun@pwc.com

Deals

최창대 Partner

chang-dae.choi@pwc.com

Platform (Software) Sector

Assurance

한종엽 Partner

jongyup.han@pwc.com

Tax

김광수 Partner

kwang.soo.kim@pwc.com

Deals

이도신 Partner

do-shin.lee@pwc.com

Telecom Sector

Assurance

한호성 Partner

hosung.han@pwc.com

Tax

박기운 Partner

ki-un.park@pwc.com

Deals

홍성표 Partner

sungpyo.hong@pwc.com

Consumer Markets Sector

Assurance

이승환 Partner

seung-whan.lee@pwc.com

Tax

오종진 Partner

jong-jin.oh@pwc.com

Tax

허윤제 Partner

yun-je.heo@pwc.com

Deals

최창윤 Partner

chang-yoon.choi@pwc.com

박영규 Partner

young-gyu.park@pwc.com

Retail Sector

Assurance

임영빈 Partner

young-bin.yim@pwc.com

Tax

허윤제 Partner

yun-je.heo@pwc.com

Deals

김준혁 Partner

jun-hyouk.kim@pwc.com

IFS

김동환 Partner

dong-hwan.kim@pwc.com

Healthcare Sector

Assurance

서용범 Partner

yongbeom.seo@pwc.com

Tax

김창훈 Partner

chang-hun.keum@pwc.com

Deals

윤창범 Partner

chang-beom.yoon@pwc.com

Banking, Card, Fintech Sector

Assurance

유엽 Partner

yeob.yu@pwc.com

Tax

박수연 Partner

soo-yun.park@pwc.com

Deals

홍영관 Partner

young-kwan.hong@pwc.com

Insurance Sector

Assurance		Tax	Deals
이 유 진 Partner eu-gene.lee@pwc.com	진 봉 재 Partner bong-jae.jin@pwc.com	박 수 연 Partner soo-yun.park@pwc.com	김 병 국 Partner byungguk.kim@pwc.com

Securities, Asset Management, Capital Sector

Assurance	Tax	Deals	
진 선 근 Partner sungeun.jin@pwc.com	박 태 진 Partner taejin.park@pwc.com	김 기 은 Partner gee-eun.kim@pwc.com	

Engineering & Construction Sector

Assurance		Tax	Deals
전 상 범 Partner sangbum.jeon@pwc.com	정 양 수 Partner yang-soo.jeong@pwc.com	김 흥 현 Partner hong-hyeon.kim@pwc.com	김 재 운 Partner jae-un.kim@pwc.com

Shipbuilding Sector

Assurance		Tax	Deals
주 대 현 Partner daehyun.jou@pwc.com	정 양 수 Partner yang-soo.jeong@pwc.com	박 기 운 Partner ki-un.park@pwc.com	홍 석 형 Partner seok-hyoung.hong@pwc.com

Mobility Sector

Assurance	Tax	Deals	
신 승 일 Partner seung-il.shin@pwc.com	이 경 민 Partner kyungminlee@pwc.com	곽 윤 구 Partner yun-goo.kwak@pwc.com	

화학 Sector

Assurance		Tax	Deals
이 기 복 Partner kibok.lee@pwc.com	김 승 훈 Partner seung-hun.kim@pwc.com	김 찬 규 Partner chan-kyu.kim@pwc.com	최 창 윤 Partner chang-yoon.choi@pwc.com

에너지/유틸리티/자원개발 Sector

Assurance	Tax	Deals	
백 봉 준 Partner bong-jun.baeg@pwc.com	김 주 덕 Partner michael.kim@pwc.com	한 정 탁 Partner jungtak.han@pwc.com	

Steel & Metals Sector

Assurance	Tax	Deals	
최 기 혁 Partner gi-hyuk.choi@pwc.com	이 동 복 Partner dongbok.lee@pwc.com	홍 진 오 Partner jino.hong@pwc.com	

Transportation & Logistics Sector

Assurance		Tax	Deals
원 치 형 Partner chihyung.won@pwc.com	최 기 혁 Partner gi-hyuk.choi@pwc.com	한 규 영 Partner kyu-young.han@pwc.com	박 치 흥 Partner chihong.park@pwc.com

ESG Sector

Assurance	Tax	Deals	
권 미 엽 Partner miyop.kwon@pwc.com	심 수 아 Partner sooa.shim@pwc.com	곽 윤 구 Partner yun-goo.kwak@pwc.com	

삼일PwC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이은영 Managing Director

eunyoung.lee@pwc.com

오선주 Senior Manager

sunjoo.oh@pwc.com

www.samil.com

S/N: 2401W-RP-003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